



인천아트플랫폼 기획전시
Incheon Art Platform Exhibition

REHEARSING
Transformation
2026.
3.26.—6.7.

인천아트플랫폼 기획전시
Incheon Art Platform Exhibition

일러두기

- ① 작가 소개 및 작품 설명은 가나다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 ② 작품 정보는 작가명, 작품명, 제작 연도, 매체 및 기법, 규격의 순서로 표기하였습니다.
- ③ 평면 작품의 규격은 세로 × 가로(cm), 입체 작품의 규격은 높이 × 폭 × 깊이(cm) 순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④ 이번 전시에는 직접 착용하거나 앉아볼 수 있는 작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험이 가능한 작품에는 별도의 안내가 마련되어 있으니, 안내에 따라 자유롭게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작품은 작품 보호를 위해 일정 거리를 두고 눈으로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 전시장 2층에서 이어지는 야외 데크 공간 또한 전시의 일부입니다. 이곳에는 KWAK Intan 작가의 조각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시기간 동안 작가와의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조각이 만들어집니다. 여러 사람의 손이 더해지며 시간에 따라 확장되는 조각의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 ⑥ 워크숍을 포함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의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와 전시장 현장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otes

- ① Artist introductions and artwork explanations are listed in alphabetical order.
- ② The artwork information consists of the artist's name, the title, the year the work was produced, the media and methods, and the dimensions, in that order.
- ③ Two-dimensional artwork specifications are given in height/width format (centimeters), while three-dimensional artwork specifications are given in height/width/depth format (centimeters).
- ④ Some of the works in this exhibition can be worn or sat on. Information is provided for these interactive works. Please feel free to enjoy them while following the instructions. For protective purposes, all other artworks should only be viewed without touching.
- ⑤ The outdoor deck leading to the second-floor gallery is also part of the exhibition. Sculpture work by KWAK Intan has been placed here, and other new sculptures will be created through workshops with the artist during the exhibition. This is an opportunity to view the process of sculpture being expanded over time through the involvement of multiple participants.
- ⑥ Details and participation information for workshops and other associated programs may be viewed on the Incheon Art Platform or provided on site.

참여형 작품 안내
이번 전시에는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경험이 확장되는 작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작품은 안내에 따라 자유롭게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Interactive Works Guide
Some of the works in this exhibition involve experiences that are expanded through viewer participation.
The following works can be experienced freely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provided.



안태원, <이상한 소품> | 전시장(B) 1F

AHN Taewon, *Weird picnic* | Gallery (B) 1F

<이상한 소품>(2026)은 작가가 기르는 반려묘 히로가 가구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며 만든 작품입니다. 히로의 형상이 담긴 테이블이 있는 의자에는 직접 앉아 볼 수 있습니다. 조각과 가구, 이미지와 사용 사이의 경계를 경험해 보세요.

Weird picnic (2026) was inspired by the artist imagining what his cat Hiro might look like as furniture. The chairs and table modeled on Hiro can be sat on. As you lean or sit there, you have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boundaries between sculpture and furniture and between image and use.



우한나, <백 위드 유_프리저빙 미> | 전시장(B) 2F

WOO Hannah, *Bag with you_Preserving me* | Gallery (B) 2F

<백 위드 유_프리저빙 미>(2026)는 착용 오브제를 직접 입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착용을 원하시면 전시장 안내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작품을 착용해 보며 자신을 보호하거나 감추는 '변신'의 감각을 신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Bag with you_Preserving me (2026) features objects that can be worn. Please ask one of the gallery attendants if you wish to put them on. Wearing the objects offers a physical experience of the sense of “transformation” as self-protection and concealment.



곽인탄, <놀이 조각>, <이모지 조각> | IAP 중앙광장 야외 테크

KWAK Intan, *Play Sculpture & Emoji Sculpture* | Outdoor deck, IAP Square

2층 전시장에서 이어지는 야외 테크에 자리한 <놀이 조각>(2026)과 <이모지 조각>(2026)은 만드는 행위와 노는 행위가 맞닿는 자리에서 태어난 조각입니다. 곁에 앉아 바람도 쐬고, 조각이 된 표정들을 가까이에서 살펴보세요. 단, 작품 위로 올라가거나 밟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Located on the outdoor deck leading to the second-floor gallery, *Play Sculpture* (2026) and *Emoji Sculpture* (2026) emerged from a place where creation meets play. As you sit beside them, you can enjoy the breeze while observing expressions that have been transformed into sculpture. We do ask that you not stand or step on the artwork.



곽인탄, <조각 함께 만들기> 워크숍 오브제 | IAP 중앙광장 야외 테크

KWAK Intan, *Making Sculpture Together* workshop objects | Outdoor deck, IAP Square

<조각 함께 만들기>(2026)는 전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워크숍을 통해 점차 완성되는 작품입니다. 작가가 미리 제작한 구조 위에 참여자들의 손이 더해지며 조각의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워크숍 일정과 참여 방법은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king Sculpture Together (2026) is a work that is gradually completed through workshops over the course of the exhibition. The shape is formed by the involvement of participants' hands on a structure pre-made by the artist. Details on the workshop schedule and how to participate can be found on the Incheon Art Platform website.

※ 위 작품을 제외한 모든 작품은 눈으로만 감상해 주세요.

※ Please do not touch any artwork that is not listed above.

목차

전시 안내
일러두기
참여형 작품 안내

Contents

Exhibition Information 2
Notes 3
Interactive Works Guide 4

변신, 되기의 시간

Transformation: A Time of Becoming 6

전시장 배치도

Floor Plan 12

전시장(B) 1F

Gallery (B) 1F

전시장(B) 2F

Gallery (B) 2F

야외 공간(야외 테크)

Outdoor Space (Outdoor deck)

작품 소개

Artworks 18

쉽게 읽는 글

Easy Read 34

전시연계 프로그램

Public Programs 42

참여 작가 약력

Artist Biographies 48

변신, 되기의 시간

김경민

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변신은 흔히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처럼 여겨집니다. 눈앞의 모습이 갑자기 달라지고 전혀 다른 존재가 나타나는 순간에는 늘 강렬한 매혹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가능해지기까지는 긴 시간과 사유, 그리고 물질 앞에서 기꺼이 머무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몸의 안과 밖을 가로지르는 구조와 감각을 더듬고, 물질의 반응을 시험하며, 하나에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연쇄를 감수하는 시간이 축적됩니다.

어릴 때 우리는 다른 무엇이 되는 일에 더 열려 있었습니다. 천 한 장을 걸치면 몸의 윤곽은 곧장 달라졌고, 팔을 뻗거나 몸을 구부리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몸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몸의 경계는 피부에서 끝나지 않았고, 주변의 사물과 물질은 쉽게 신체의 일부로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몸을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이해했고, 사물에 제자리를 부여하고 분류했습니다. 조각 역시 완결된 형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상이란 본래 물질과 감각, 지지의 조건이 특정한 방식으로 만날 때 비로소 성립하며, 그 조건이 달라지면 형상 역시 다르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인천아트플랫폼 기획전시 «변신 연습»은 동시대 조각을 중심으로, 형상이 물질과 감각의 조건 사이를 이동하며 다른 존재일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이 전시는 몸과 사물, 이미지와 매체를 가로질러 존재의 위상 자체가 이동하는 경험과 그 과정을 '변신 연습'이라 부릅니다. 변신을 형상과 제작, 감각의 조건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지속되는 연습의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변신'이 한 존재가 다른 조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이름이라면, '연습'은 그 가능성이 단번에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연습은 완결을 유예한 채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몸과 물질의 반응을 감각하며, 아직 도달하지 않은 형상을 향해 조건을 고쳐 나가는 시간입니다.

참여 작가 박인탄, 안태원, 우한나, 이형구는 서로 다른 물질적·시간적 조건 속에서 형상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다시 묻고, 그 성립의 조건 자체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변형하며 물질과 감각, 제작 행위의 관계를 시험합니다. 가상에 물질적 조건을 부여하는 상상과 신체의 안과 밖을 가로지르며 경계를 다시 그리는 실천, 비가시적인 것을 감각하고 체화하려는 시도, 창작을 완결이 아닌 열린 과정으로 전환하는 태도는 '다르게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질문 앞에서 교차하고 상통합니다.

이형구는 존재하지 않는 몸에 해부학과 분류학의 체계를 부여하며, 가상의 존재가 현실의 질서 안에서 하나의 신체로 성립되는 조건을 구축합니다. 또한 자신의 몸에 낫선 종의 운동학을 이식하는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감각의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작업은 무엇이 존재로 승인되는지를 되묻는 동시에, 몸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한나는 신체 안에 잠재한 에너지를 패브릭을 매개로 바깥의 형태로 끌어냅니다. 보호와 은신, 노출의 감각을 동시에 품은 패브릭이 착용 가능한 외피가 될 때, 입는 행위는 몸의 경계를 다시 구성하는 방식이 됩니다. 바느질되고 접히고 매달리는 천은 피부이자 장막이며 하나의 기관으로 작동합니다. 우한나의 조각은 접히고 늘어지며 몸과 함께 움직이는 유연한 구조를 이룹니다.

안태원은 이미지와 물질이 만나는 접면에서 감각의 불일치를 다룹니다. 친밀한 존재의 감각과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이미지의 감각을 하나의 표면 위에 겹쳐 놓습니다. 체온과 촉각을 지닌 대상은 스캔과 변형을 거치며 이미지의 흐름으로 들어가지만, 물질 위에 놓이는 순간 그 감각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채 남습니다. 두 감각은 포개지지 않은 상태로 어긋나며, 작가는 그 어긋남을 새로운 형상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박인탄은 하나의 조각이 다음 조각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생성의 흐름을 만듭니다. 제작 과정에서 남겨진 파편과 잔여는 다시 다음 작업의 재료가 되며, 함께 만드는 시간 속에서 여러 사람의 손이 개입하는 열린 구조를 통해 조각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놀이와 제작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조각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 수 있는지를 실험합니다.

변형된 형상은 존재의 새로운 층위를 열어 보이며,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 온 몸과 형상의 질서를 다시 묻습니다. 오랜 수행의 시간이 응축된 작업 사이를 걸으며 가변적이고 임시적인 감각의 지대를 통과합니다. 일부 작업은 앉고, 걸치고, 함께 만드는 행위를 통해 각자의 방식으로 변신의 감각을 마주하게 합니다. 변신 연습은 지금, 이곳에서 계속됩니다.

Transformation: A Time of Becoming

KIM Kyungmin
Curator,
Incheon Art Platform

We often regard transformation as something that happens in an instant. There is always a powerful fascination we feel in moments when something before us suddenly changes and a completely different presence reveals itself. But for such changes to become possible, we need a lot of time and contemplation, along with a willingness to remain in the presence of something substantial. It is an accumulation of moments when we refine structures and senses within and outside the body, test the substance's response, and accept the sequences that lead from one thing to another.

As children, we were much more open to becoming something else. Simply placing a piece of fabric over our body was enough to change its contours, and by stretching out our arms or bending, we could imagine a different body besides our own. The body did not stop at our skin; surrounding objects and substances could easily become part of it. As time passed, we began understanding the body as a fixed form and assigning places and categories to objects. Sculptures likewise came to be understood as completed forms. But form is something that comes to be when matter is organized in a certain way and the senses interpret it as the appearance of something. Those forms may be composed differently as the arrangements and conditions of perception change.

The 2026 Incheon Art Platform special exhibition *Rehearsing Transformation* focuses on contemporary sculpture as it examines the process of forms shifting between differing material and sensory conditions and shows the potential to become a different presence entirely. It uses the term “rehearsing transformation” to describe an experience and process in which the very state of being shifts across the body, objects, images, and media. If “transformation” means the possibility of one presence manifesting under different conditions, “rehearsing” starts with us accepting that this possibility is not realized all at once. Rehearsal is a period of repeating the same movement without a completed outcome, sensing the reactions of the body and matter while adjusting the conditions toward something that has yet to arrive.

The featured artists—KWAK Intan, AHN Taewon, WOO Hannah, and LEE Hyungkoo—reorganize the ways in which forms manifest in different material and temporal contexts, constantly testing the relationships that exist among substance, perception, and production. Their approaches involve imagining ways of assigning material conditions to fictional things; practicing the redrawing of boundaries between the body's interior and exterior; attempting to perceive and internalize the invisible; and turning creation into an open-ended process rather than a “completion.” All of these intersect and connect around the question of how things might be differently composed.

LEE Hyungkoo applies anatomical and taxonomic systems to nonexistent bodies, creating a context where fictional forms come to stand as bodies in the real-world order. He also shows the process of sensory structures rearranging through a repeated performance in which the kinematics of foreign species are transplanted into his body. In addition to raising questions about what is recognized as “being,” his work suggests concrete conditions for the body to operate in different ways.

WOO Hannah uses fabric as a medium to draw the potential energy inside the body into an outward form. Fabric harbors senses of protection, concealment, and exposure, and when it becomes a wearable covering, it offers a way to redefine the body's boundaries through the act of wearing. As it is stitched, folded, and suspended, it operates at once as a skin, a curtain, and an organ. Woo's sculptures create flexible structures that fold, stretch, and move with the body.

AHN Taewon focuses on the deviations that arise in the senses where images and substance come together. On a single surface, he overlaps the perceptions of familiar presences with those of images circulated over networks. Things that possess warmth and tactility enter a flow of images through processes of scanning and transformation, but when they appear in a material setting, the perceptions appear in ways that do not fully align. The two perceptions linger without overlapping, and it is this misalignment that the artist uses as a foundation for new fo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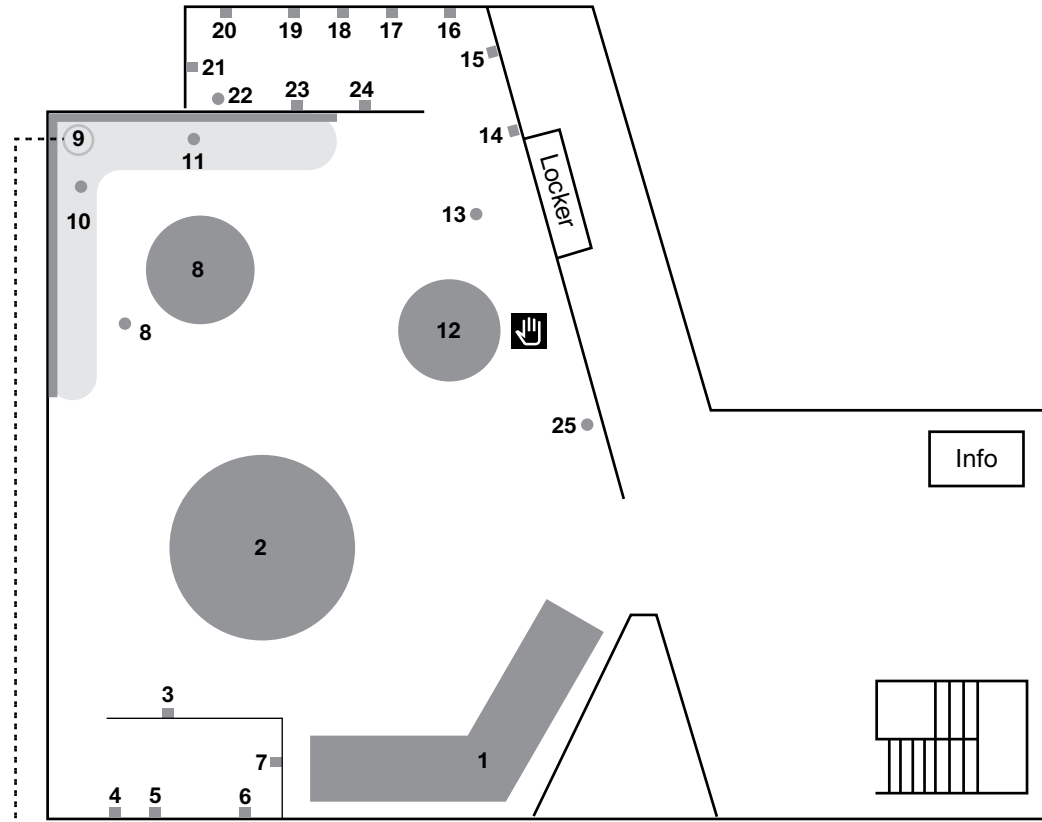
KWAK Intan creates serial flows of generation where one sculptural form leads to another. Reusing the fragments and residues of his

production process as materials for the next sculpture, he opens up structures where multiple hands are involved in an experience of co-creation. He experiments with the question of how open a medium sculpture can be where play and creation come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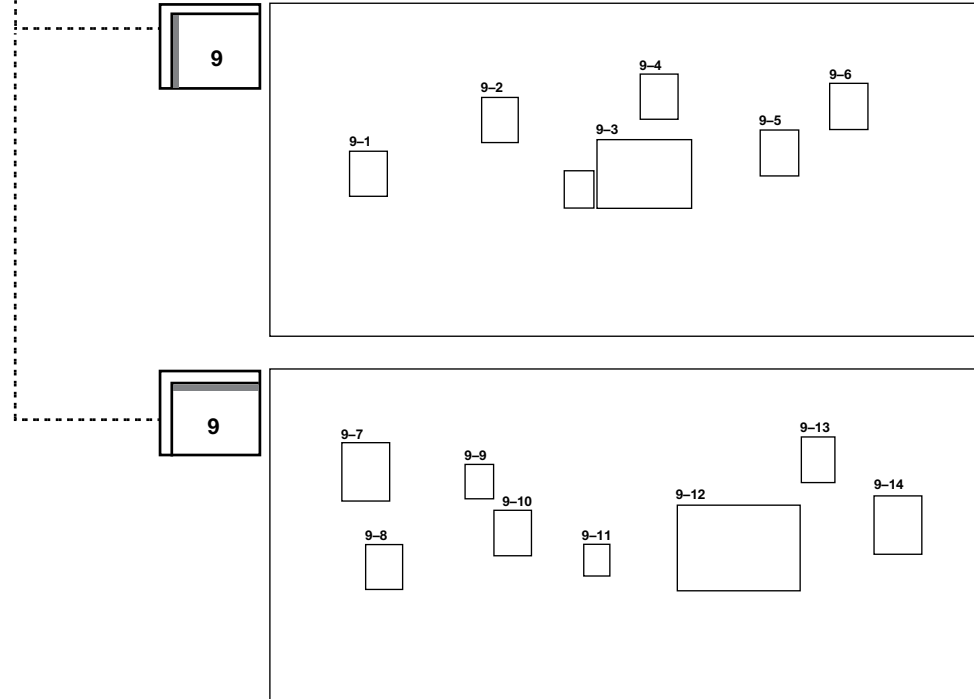
These transformed shapes open different layers of being, posing new questions about the familiar and accepted order of the body and form. Visitors to the gallery will pass through a realm of variable, temporary perceptions as they walk among works that distill long experiences of execution. Some of those works invite the viewer to experience the sense of transformation through their own acts of sitting, wearing, and co-creating. The process of “rehearsing transformation” continues here and now.

전시장 배치도

Floor Plan



작품 위치 | Artwork Locations



전시장(B) 1층

1. 박인탄, <저글링>, 2023, 혼합재료(레진, 석고, PLA, 톱밥, 철, 스테인리스 스틸), 가변크기.
KWAK Intan, *Juggling*, 2023, mixed media (resin, plaster, PLA, sawdust, steel, stainless steel), dimensions variable.
2. 우한나, <밀크 앤 허니-11>, 2023, 패브릭, 비즈, 솜, 590 × 300 × 295 cm.
프리즈 서울 아티스트 어워드 제작 지원, 불가리 후원.
WOO Hannah, *Milk and Honey-11*, 2023, fabric, beads, stuffing, 590 × 300 × 295 cm.
Commissioned for the Frieze Seoul Artist Award, supported by Bulgari.
3. 우한나, <투르뚝>, 2025, 종이에 연필, 47.3 × 38.8 cm.
WOO Hannah, *Toordut*, 2025, pencil on paper, 47.3 × 38.8 cm.
4. 우한나, <히아체>, 2025, 종이에 연필, 39.4 × 45 cm.
WOO Hannah, *Heaché*, 2025, pencil on paper, 39.4 × 45 cm.
5. 우한나, <휘무트>, 2025, 종이에 연필, 40.3 × 40.8 cm.
WOO Hannah, *Fimmutt*, 2025, pencil on paper, 40.3 × 40.8 cm.
6. 우한나, <사비딤>, 2025, 종이에 연필, 47.3 × 38.8 cm.
WOO Hannah, *Savidim*, 2025, pencil on paper, 47.3 × 38.8 cm.
7. 우한나, <직조된 존재들>, 2025, 종이에 연필, 컬러 프레임, 35.8 × 43.4 cm.
WOO Hannah, *Woven Beings*, 2025, pencil on paper, color frame, 35.8 × 43.4 cm.
8. 이형구, <아나스 애니마투스, 아나스 애니마투스 에이치, 아나스 애니마투스 디, 아나스 애니마투스 엘>, 2006, 레진, 알루미늄 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스프링, 오일 페인트, 45 × 79 × 53 cm, 52 × 28 × 34.5 cm, 52 × 30.5 × 33 cm, 49.5 × 31 × 33 cm.
LEE Hyungkoo, *Anas Animatus, Anas Animatus H, Anas Animatus D, and Anas Animatus L*, 2006, resin, aluminum sticks, stainless steel wires, springs, oil paint, 45 × 79 × 53 cm, 52 × 28 × 34.5 cm, 52 × 30.5 × 33 cm, 49.5 × 31 × 33 cm.
9. 이형구, <아틀라스 오브 애니마투스 아나토미>, 2026, 혼합재료, 가변크기.
인천아트플랫폼 제작 지원.
LEE Hyungkoo, *Atlas of Animatus Anatomy*, 2026,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Commissioned by Incheon Art Platform.
- 9-1. 이형구, <C23 무스 m 애니마투스(도입)>, 2025, 종이에 연필, 아크릴, 38 × 32 cm.
LEE Hyungkoo, *C23 Mus m animatus (Introduction)*, 2025, pencil, acrylic on paper, 38 × 32 cm.
- 9-2. 이형구, <C26 판테라 로세아 애니마투스>, 2026, 종이에 연필, 아크릴, 41 × 34 cm.
LEE Hyungkoo, *C26 Panthera rosea animatus*, 2026, pencil, acrylic on paper, 41 × 34 cm.

Gallery (B) 1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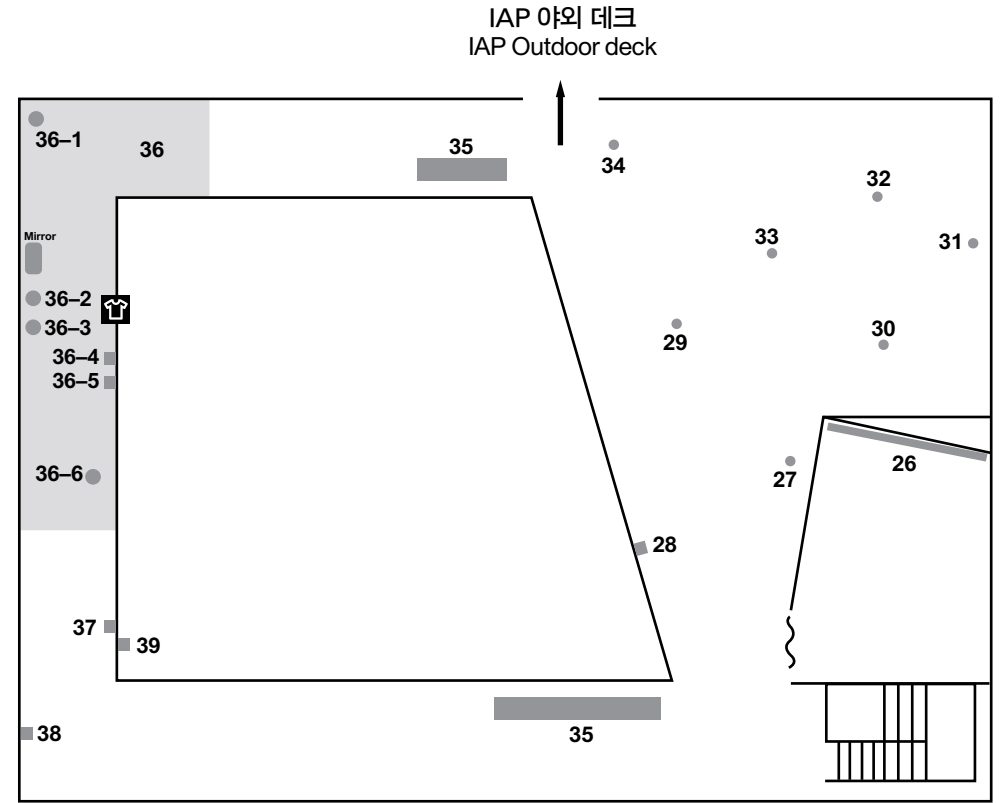
- 9-3. 이형구, <C32 펠리스 카투스 애니마투스 & 무스 애니마투스>, 2025, 종이에 연필, 아크릴, 56.5 × 75.8 cm, 30.3 × 23.8 cm.
LEE Hyungkoo, *C32 Felis catus animatus & Mus animatus*, 2025, pencil, acrylic on paper, 56.5 × 75.8 cm, 30.3 × 23.8 cm.
- 9-4. 이형구, <C29 판테라 로세아 애니마투스>, 2026, 종이에 연필, 아크릴, 41 × 34 cm.
LEE Hyungkoo, *C29 Panthera rosea animatus*, 2026, pencil, acrylic on paper, 41 × 34 cm.
- 9-5. 이형구, <C10 세리누스 카나리아 애니마투스>, 2023, 종이에 연필, 아크릴, 30.5 × 25 cm.
LEE Hyungkoo, *C10 Serinus canaria animatus*, 2023, pencil, acrylic on paper, 30.5 × 25 cm.
- 9-6. 이형구, <C11 게오코키스 애니마투스>, 2023, 종이에 연필, 아크릴, 30.5 × 25 cm.
LEE Hyungkoo, *C11 Geococcyx animatus*, 2023, pencil, acrylic on paper, 30.5 × 25 cm.
- 9-7. 이형구, <C27 판테라 로세아 애니마투스>, 2026, 종이에 연필, 아크릴, 41 × 34 cm.
LEE Hyungkoo, *C27 Panthera rosea animatus*, 2026, pencil, acrylic on paper, 41 × 34 cm.
- 9-8. 이형구, <C28 판테라 로세아 애니마투스>, 2026, 종이에 연필, 아크릴, 41 × 34 cm.
LEE Hyungkoo, *C28 Panthera rosea animatus*, 2026, pencil, acrylic on paper, 41 × 34 cm.
- 9-9. 이형구, <C06 무스 애니마투스>, 2023, 종이에 연필, 아크릴, 28.4 × 23 cm.
LEE Hyungkoo, *C06 Mus animatus*, 2023, pencil, acrylic on paper, 28.4 × 23 cm.
- 9-10. 이형구, <C07 펠리스 카투스 애니마투스>, 2023, 종이에 연필, 아크릴, 40.3 × 34 cm.
LEE Hyungkoo, *C07 Felis catus animatus*, 2023, pencil, acrylic on paper, 40.3 × 34 cm.
- 9-11. 이형구, <C16 무스 m 애니마투스>, 2025, 종이에 연필, 아크릴, 26 × 21 cm.
LEE Hyungkoo, *C16 Mus m animatus*, 2025, pencil, acrylic on paper, 26 × 21 cm.
- 9-12. 이형구, <C46 판테라 로세아 애니마투스에서 관찰되는 복외위 자세 붕괴>, 2026, 종이에 연필, 아크릴, 70 × 100 cm.
LEE Hyungkoo, *C46 Prone Postural Collapse in Panthera rosea animatus*, 2026, pencil, acrylic on paper, 70 × 100 cm.
- 9-13. 이형구, <C13 아나스 DF 애니마투스>, 2024, 종이에 연필, 아크릴, 42.3 × 32.3 cm.
LEE Hyungkoo, *C13 Anas DF animatus*, 2024, pencil, acrylic on paper, 42.3 × 32.3 cm.
- 9-14. 이형구, <C08 펠리스 카투스 애니마투스 & 무스 애니마투스>, 2023, 종이에 연필, 아크릴, 48.5 × 40.3 cm.
LEE Hyungkoo, *C08 Felis catus animatus & Mus animatus*, 2023, pencil, acrylic on paper, 48.5 × 40.3 cm.

- 10. 이형구, <세리누스 카나리아 아니마투스>, 2009, 레진, 알루미늄 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스프링, 오일 페인트, 15.5 × 15 × 21 cm.
LEE Hyungkoo, *Serinus Canaria Animatus*, 2009, resin, aluminum sticks, stainless steel wires, springs, oil paint, 15.5 × 15 × 21 cm.
- 11. 이형구, <아나스 DF 아니마투스>, 2015, 레진, 알루미늄 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스프링, 오일 페인트, 85.5 × 88 × 42.5 cm.
LEE Hyungkoo, *Anas DF Animatus*, 2015, resin, aluminum sticks, stainless steel wires, springs, oil paint, 85.5 × 88 × 42.5 cm.
- 12. 안태원, <이상한 소풍>, 2026, 나무에 우레탄, 아크릴릭, 130 × 130 × 120 cm.
인천아트플랫폼 제작 지원.
AHN Taewon, *Weird picnic*, 2026, urethane, acrylic on wood, 130 × 130 × 120 cm.
Commissioned by Incheon Art Platform.
- 13-1. 안태원, <히로는 어디에나 있다>, 2025, 레진에 아크릴릭, 66 × 24 × 39 cm.
AHN Taewon, *Hiro is everywhere*, 2025, acrylic on resin, 66 × 24 × 39 cm.
- 13-2. 안태원, <줄기>, 2026, 우레탄에 아크릴릭, 40 × 60 × 30 cm.
AHN Taewon, *Stem*, 2026, acrylic on urethane, 40 × 60 × 30 cm.
- 14. 안태원, <스크래처>, 2025, 나무 패널에 우레탄, 아크릴릭, 27 × 45.5 cm.
AHN Taewon, *Scratcher*, 2025, urethane, acrylic on wood panel, 27 × 45.5 cm.
- 15. 안태원, <히로 13>, 2025, 나무 패널에 우레탄, 아크릴릭, 21 × 29.5 cm.
AHN Taewon, *Hiro 13*, 2025, urethane, acrylic on wood panel, 21 × 29.5 cm.
- 16. 안태원, <유연함의 왕>, 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91 × 91 cm.
AHN Taewon, *King of flexible*, 2023, acrylic on canvas, 91 × 91 cm.

- 17. 안태원, <박스 안에>, 2025, PLA에 우레탄, 아크릴릭, 19.5 × 18 × 13 cm.
AHN Taewon, *In the box*, 2025, urethane, acrylic on PLA, 19.5 × 18 × 13 cm.
- 18. 안태원, <히로 17>, 2025, 나무 패널에 우레탄, 아크릴릭, 21 × 29.5 cm.
AHN Taewon, *Hiro 17*, 2025, urethane, acrylic on wood panel, 21 × 29.5 cm.
- 19. 안태원, <히로 3>, 2025, 나무 패널에 우레탄, 아크릴릭, 29.5 × 21 cm.
AHN Taewon, *Hiro 3*, 2025, urethane, acrylic on wood panel, 29.5 × 21 cm.
- 20. 안태원, <히로 5>, 2025, 나무 패널에 우레탄, 아크릴릭, 29.5 × 21 cm.
AHN Taewon, *Hiro 5*, 2025, urethane, acrylic on wood panel, 29.5 × 21 cm.
- 21. 안태원, <히로 6>, 2025, 나무 패널에 우레탄, 아크릴릭, 21 × 29.5 cm.
AHN Taewon, *Hiro 6*, 2025, urethane, acrylic on wood panel, 21 × 29.5 cm.
- 22-1. 안태원, <히로는 어디에나 있다>, 2024, 에폭시에 아크릴릭, 30.6 × 30 × 17 cm.
AHN Taewon, *Hiro is everywhere*, 2024, acrylic on epoxy, 30.6 × 30 × 17 cm.
- 22-2. 안태원, <줄기>, 2024, 우레탄에 아크릴릭, 63.5 × 32 × 30 cm.
AHN Taewon, *Stem*, 2024, acrylic on urethane, 63.5 × 32 × 30 cm.
- 23. 안태원, <히로 1>, 2025, 나무 패널에 우레탄, 아크릴릭, 29.5 × 21 cm.
AHN Taewon, *Hiro 1*, 2025, urethane, acrylic on wood panel, 29.5 × 21 cm.
- 24. 안태원, <히로 16>, 2025, 나무 패널에 우레탄, 아크릴릭, 21 × 29.5 cm.
AHN Taewon, *Hiro 16*, 2025, urethane, acrylic on wood panel, 21 × 29.5 cm.
- 25. 안태원, <히로는 유연하다>, 2023, 레진에 아크릴릭, 31.5 × 150 × 60 cm.
AHN Taewon, *Hiro is flexible*, 2023, acrylic on resin, 31.5 × 150 × 60 cm.

전시장(B) 2층

Gallery (B) 2F



- 26. 이형구, <메저>, 2014,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5분 8초.
LEE Hyungkoo, *MEASURE*, 2014,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5 min. 8 sec.
- 27. 이형구, <인스트루먼트 02>, 2014, 알루미늄 튜브, 알루미늄, 목재, 가죽, 버클, 리베트, 실, 와이어, 톨립, 볼트, 너트, 나사, 베어링, 와셔, 구리못, 철 편자(0호), 편자못, 말총, 153 × 86 × 48 cm.
LEE Hyungkoo, *Instrument 02*, 2014, aluminum tubes, aluminum, wood, leather, buckles, rivets, thread, wire, toe clips, bolts, nuts, screws, bearings, washers, copper nails, steel horseshoes(O), hobnails, horse tail, 153 × 86 × 48 cm.
- 28. 안태원, <밤>, 2024, 캔버스에 아크릴릭, 116.8 × 91 cm.
AHN Taewon, *Night*, 2024, acrylic on canvas, 116.8 × 91 cm.
- 29. 안태원, <디지털 꼬치>, 2026, 스티로폼, 우레탄에 아크릴릭, 290 × 90 × 90 cm.
인천아트플랫폼 제작 지원.
AHN Taewon, *Digital skewers*, 2026, acrylic on Styrofoam, urethane, 290 × 90 × 90 cm.
Commissioned by Incheon Art Platform.

- 30. 광인탄, <놀이터 1>, 2023, 레진, 석고, 시멘트, 아크릴릭, 수성 페인트, 철, 스테인리스 스틸, 183 × 82 × 59 cm.
KWAK Intan, *Playground 1*, 2023, resin, plaster, cement, acrylic, water-based paint, steel, stainless steel, 183 × 82 × 59 cm.
- 31-1. 안태원, <히로는 어디에나 있다>, 2024, 에폭시에 아크릴릭, 30.7 × 32 × 40.5 cm.
AHN Taewon, *Hiro is everywhere*, 2024, acrylic on epoxy, 30.7 × 32 × 40.5 cm.
- 31-2. 안태원, <줄기>, 2024, 우레탄에 아크릴릭, 10 × 65 × 35 cm.
AHN Taewon, *Stem*, 2024, acrylic on urethane, 10 × 65 × 35 cm.
- 32. 광인탄, <동세 21-1>, 2021, 레진, 철, 스테인리스 스틸, 타공판, 퍼티, 아크릴릭, 에폭시, 바퀴, 160 × 97 × 63 cm.
KWAK Intan, *Movement 21-1*, 2021, resin, steel, stainless steel, perforated panel, putty, acrylic, epoxy, wheel, 160 × 97 × 63 cm.
- 33. 광인탄, <동세 4>, 2022, 레진, 아크릴릭, 에폭시, 우레탄 폼, 철, 175 × 48 × 59 cm.
KWAK Intan, *Movement 4*, 2022, resin, acrylic, epoxy, urethane foam, steel, 175 × 48 × 59 cm.

34. 박인탄, <탱탱볼 1, 2024, 레진, 아크릴릭, 수성 페인트, 철, 108 × 220 × 50 cm.
KWAK Intan, *Bouncy Ball 1*, 2024, resin, acrylic, water-based paint, steel, 108 × 220 × 50 cm.

35. 박인탄, <조각열차, 2025/2026, 레진, 아크릴릭, 수성 페인트, 철, 가변크기.
KWAK Intan, *Sculpture Train*, 2025/2026, resin, acrylic, water-based paint, steel, dimensions variable.

36-1. 우한나, <백 위드 유_프리저빙 미(은신), 2026, 패브릭, 솜, 스틸 파이프, 비즈, 170 × 200 × 200 cm.
인천아트플랫폼 제작 지원.
WOO Hannah, *Bag with you_Preserving me (Cloak)*, 2026, fabric, stuffing, steel pipe, beads, 170 × 200 × 200 cm.
Commissioned by Incheon Art Platform.

36-2. 우한나, <백 위드 유_프리저빙 미(은신), 2026, 패브릭, 솜, 착용 오브제, 110 × 100 × 10 cm.
인천아트플랫폼 제작 지원.
WOO Hannah, *Bag with you_Preserving me (Cloak)*, 2026, fabric, stuffing, wearable object, 110 × 100 × 10 cm.
Commissioned by Incheon Art Platform.

36-3. 우한나, <백 위드 유_프리저빙 미(결계), 2026, 패브릭, 솜, 비즈, 와이어, 착용 오브제, 70 × 23 × 15 cm.
인천아트플랫폼 제작 지원.
WOO Hannah, *Bag with you_Preserving me (Ward)*, 2026, fabric, stuffing, beads, wire, wearable object, 70 × 23 × 15 cm.
Commissioned by Incheon Art Platform.

36-4. 우한나, <은신 Preserving Me at Home 2, 2026, 단채널 영상, 컬러, 24초.
인천아트플랫폼 제작 지원.
WOO Hannah, *Cloak Preserving Me at Home 2*, 2026, single-channel video, color, 24 sec.
Commissioned by Incheon Art Platform.

36-5. 우한나, <결계 Preserving Me at Home 1, 2026, 단채널 영상, 컬러, 23초.
인천아트플랫폼 제작 지원.
WOO Hannah, *Ward Preserving Me at Home 1*, 2026, single-channel video, color, 23 sec.
Commissioned by Incheon Art Platform.

영상 크레딧 (36-4, 36-5 공동)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세오
필름 디렉터: 김세오, 김재현
포토그래퍼: 김재현
댄서: 정의영
스타일리스트: 김세오
헤어 아티스트: 여미애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민지
카메라 어시스턴트: 강하늘, 최성우

Video Credits (for 36-4, 36-5)
Creative Director: KIM Seoh
Film Directors: KIM Seoh, KIM Jaehyun
Photographer: KIM Jaehyun
Dancer: JUNG Uiyoung
Stylist: KIM Seoh
Hair Artist: YEO Miae
Makeup Artist: KIM Minji
Camera Assistants:
KANG Haneul, CHOI Seong U

36-6. 우한나, <백 위드 유_프리저빙 미(결계), 2026, 패브릭, 솜, 비즈, 실, 스틸 파이프, 160 × 65 × 30 cm.
인천아트플랫폼 제작 지원.
WOO Hannah, *Bag with you_Preserving me (Ward)*, 2026, fabric, stuffing, beads, thread, steel pipe, 160 × 65 × 30 cm.
Commissioned by Incheon Art Plat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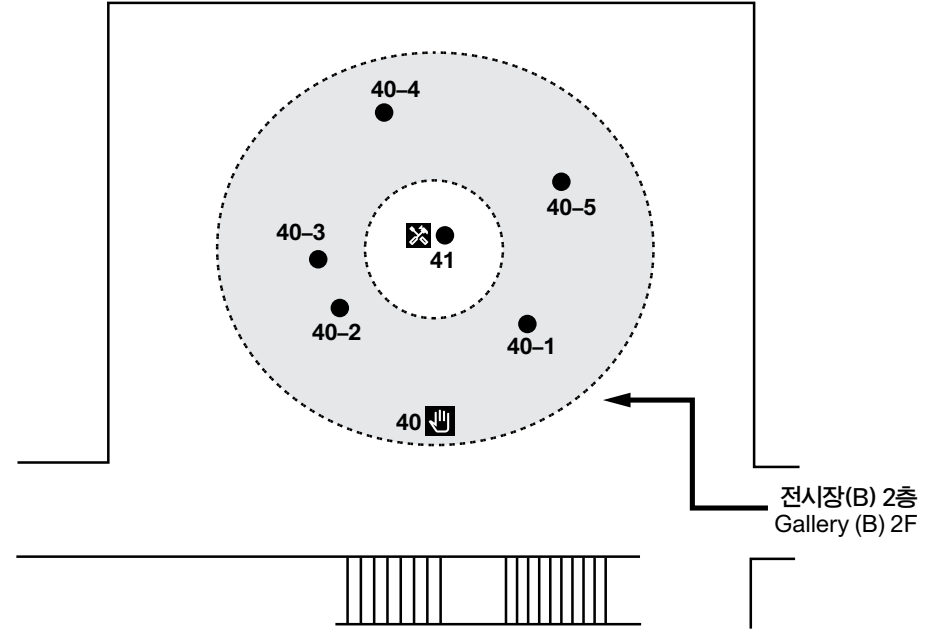
37. 우한나, <수수>, 2025, 종이에 연필, 47.3 × 38.8 cm.
WOO Hannah, *Xooxoo*, 2025, pencil on paper, 47.3 × 38.8 cm.

38. 우한나, <마이에스>, 2025, 종이에 연필, 38.8 × 42.3 cm.
WOO Hannah, *Mayes*, 2025, pencil on paper, 38.8 × 42.3 cm.

39. 우한나, <암컷>, 2025, 종이에 연필, 컬러 프레임, 43.3 × 39.5 cm.
개인 소장, 지 갤러리 제공
WOO Hannah, *A Female*, 2025, pencil on paper, color frame, 43.3 × 39.5 cm.
Private collection, courtesy of G Gallery

야외 공간(야외 데크)

Outdoor Space (Outdoor deck)



40-1. 박인탄, <놀이 조각 2>, 2026,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우레탄 페인트, 45 × 130 × 41 cm.
인천아트플랫폼 제작 지원.
KWAK Intan, *Play Sculpture 2*, 2026, fiberglass-reinforced plastic, urethane paint, 45 × 130 × 41 cm.
Commissioned by Incheon Art Platform.

40-2. 박인탄, <이모지 조각 2 (따봉)>, 2026,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우레탄 페인트, 19 × 70 × 40 cm.
인천아트플랫폼 제작 지원.
KWAK Intan, *Emoji Sculpture 2 (Thumbs up)*, 2026, fiberglass-reinforced plastic, urethane paint, 19 × 70 × 40 cm.
Commissioned by Incheon Art Platform.

40-3. 박인탄, <이모지 조각 1 (스마일)>, 2026,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우레탄 페인트, 30 × 40 × 38 cm.
인천아트플랫폼 제작 지원.
KWAK Intan, *Emoji Sculpture 1 (Smile)*, 2026, fiberglass-reinforced plastic, urethane paint, 30 × 40 × 38 cm.
Commissioned by Incheon Art Plat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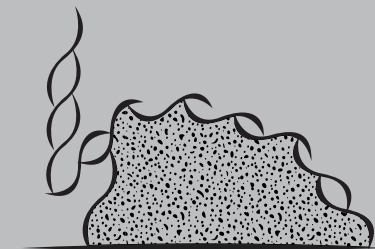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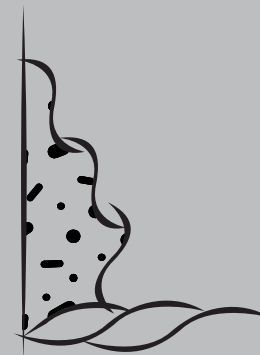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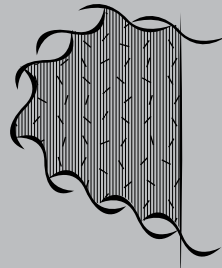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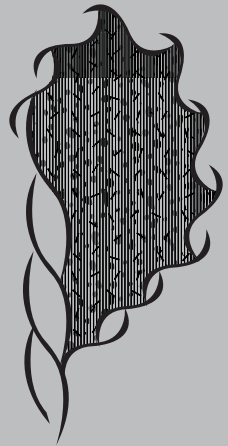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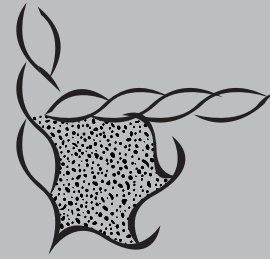
40-4. 박인탄, <놀이 조각 1>, 2026,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우레탄 페인트, 100 × 83 × 50 cm.
인천아트플랫폼 제작 지원.
KWAK Intan, *Play Sculpture 1*, 2026, fiberglass-reinforced plastic, urethane paint, 100 × 83 × 50 cm.
Commissioned by Incheon Art Platform.

40-5. 박인탄, <이모지 조각 3 (하트)>, 2026,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우레탄 페인트, 30 × 64 × 53 cm.
인천아트플랫폼 제작 지원.
KWAK Intan, *Emoji Sculpture 3 (Heart)*, 2026, fiberglass-reinforced plastic, urethane paint, 30 × 64 × 53 cm.
Commissioned by Incheon Art Platform.

41. 박인탄, <조각 함께 만들기> 워크숍 오브제, 2026, 혼합 재료, 가변 크기(전시 기간 중 제작).
인천아트플랫폼 제작 지원.
KWAK Intan, *Making Sculpture Together workshop object*, 2026,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created during the exhibition).
Commissioned by Incheon Art Platform.

작품 소개

Artworks



곽인탄, <저글링>, 2023, 혼합재료(에칭, 석고, PLA, 폼판, 철, 스테인리스 스틸), 가변크기.
KWAK Intan, Juggling, 2023, mixed media (etch, plaster, PLA, sawdust, steel, stainless steel), dimensions variable.



곽인탄의 조각은 하나의 형상이 또 다른 형상을 불러내는 연쇄적 생성의 구조 속에서 전개된다. 하나의 조각이 완성되는 순간 다음 조각의 조건이 열리고, 제작 과정에서 남겨진 파편과 잔여물은 다시 새로운 조각의 재료가 된다. 미술사의 이미지와 어린 시절의 기억, SNS에서 빠르게 소비되는 이모티콘까지 서로 다른 시간의 이미지들이 하나의 조각 표면 위에서 뒤섞이며 다음 형상을 불러낸다. 빠르게 생성되고 사라지는 동시대 이미지 환경에 대한 감각과 멈출 수 없는 조각적 충동이 이 과정을 추동하지만, 작가는 그 안에서 조각이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자유를 작업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다.

전시장 1층에서 만나는 <저글링>(2023)에서 작은 조각들은 서로를 참조하며 이어진다. 작가는 이 조각들을 '저글링(공)'이라 일컬으며, 곡예사가 공을 던지고 받으며 리듬을 만들어내듯 전시 공간에서 조각들을 교차시키고 공연과 같은 광경을 연출한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과정

속에서 형태·물성·색채가 끊임없이 변주된다. <저글링>을 둘러싸고 연출된 거울 벽면은 조각과 그 잔상을 겹쳐 반사하며, 증식의 감각을 확장한다. 서커스의 묘기가 막대한 훈련과 반복의 산물인 것처럼, 이 자유로운 조각적 변주 역시 매체에 대한 오랜 몰입과 조형적 수행 위에서 가능해진다.

2층 전시장에 자리한 <동세> 연작은 이러한 작업 방식이 본격화된 출발점이다. '동세(動勢)'는 고전 조각이 추구했던 인체의 역동적 자세이자, 조각 내부에서 힘과 이미지가 충돌하며 발생하는 새로운 운동성을 가리킨다.

<동세 21-1>(2021)은 전작의 시멘트 큐브 안에 갇혀 있던 형상을 외부로 끌어내는 데서 출발했다.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의 <지옥의 문> 위에 앉아 있는 인물을 참조한 이 형상 위에서 작가가 축적해온 조각적 방법이 드러나지만, 곧 파편화되고 다시 뒤섞이며 전혀 다른 전신을 구성한다. 하나의 완성이 해체의 출발점이 되고,

해체가 다시 또 다른 조각의 출발이 되는 순환이 연작 전체를 가로지른다.

<동세 4>(2022)는 호랑이해에 태어난 작가가 같은 해를 맞아 제작한 자화상으로, 로댕의 <청동시대>(1877)를 참조하면서도 호랑이와 어린 시절 좋아했던 공룡의 잔상, 이모티콘이 곳곳에 혼합된다. 서로 다른 시간의 이미지들이 하나의 조각 표면 위에 물질적 잔여물로 공존하며, 조각이라는 매체가 다룰 수 있는 시간의 층위를 넓힌다.

야외 테크로 이어지는 동선에서 형상들의 증식은 더욱 속도를 얻는다. <놀이터 1>(2023)은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과 각기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작은 조각들이 하나의 구조 위에서 증식하듯 펼쳐지는 작업이다. 어린 시절 놀이터의 기억과 여러 시간대의 풍경이 다층적인 잔상으로 겹쳐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탱탱볼 1>(2024)에서는 이모티콘 조각이 공처럼 던져져 공간을 가로지르는 궤적으로 형상화된다. <조각열차>(2025/2026)는 다양한 이모지·동물·과일 조각들이 기차처럼 길게

이어지며 롤러코스터와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본래 경춘선숲길의 기차길 위에 설치되었던 9미터 길이의 이 작업은 이번 전시에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 2층 난간 공간을 따라 이어지며, 증식과 가속의 에너지를 공간 전체에 펼친다.

인천아트플랫폼 야외 테크에 이르던 작가의 조각은 한 사람의 손을 벗어난다. 작은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형상을 이루며 공명하는 작업 방식의 연장에서, 작가는 여럿의 손에 의해 열린 채로 이어지는 조각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신작 <놀이 조각> 연작은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이모지 조각들, 미끄럼틀 형태의 놀이 조각, 어린이 키만 한 놀이 조각 등으로 구성된다. 전시 기간 중 세 차례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작가가 선행 제작한 조각 구조 위에 여러 손들이 더해지며 형상이 점진적으로 만들어진다. 곽인탄에게 조각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은, 조각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일이다.

KWAK Intan's sculptures are presented in serial structures of creation in which one form summons another. As soon as one sculpture is completed, the conditions for the next one are formed, while the fragments and residues of the production process provide materials for the next creation. The forms that follow are evoked by a mixture of elements on a singular sculptural surface: images from art history, childhood memories, and even the emoticons that are rapidly consumed in social media. It is a process driven by an unstoppable sculptural impulse and a sense for the contemporary image environment, where things are quickly created and disappear. At the same time, a crucial element in the artist's work is sculpture's freedom to choose and pursue its own course.

Juggling (2023), which is found on the gallery's first floor, has small sculptures presented in a serial structure of mutual reference. The artist describes them as "juggling (balls)," creating a performance-like scene through the intersection of sculptures in the exhibition space, much like an acrobat establishing a rhythm while tossing and catching balls. Constant variations of form, materiality, and color arise as one becomes two and two become three. The mirrored surface around *Juggling* extends the sense of proliferation with its overlapping reflections of the sculptures and their afterimages. Just as a circus skill is a product of immense amounts of training and repetition, these free sculptural variations are made possible by long periods of immersion in media and aesthetic practice.

The works in the *Movement* series on the gallery's second floor represent the starting point for that artistic approach. "Movement" here is a reference to the dynamic stance that

classical sculpture sought to achieve with the body, as well as the new motion created through the collisions of forces and images within sculpture. *Movement 21-1* (2021) started with the externalization of form that had been trapped within a previous work's cement cube. The sculpture methods developed by the artist appear on a form referencing a figure seated on *The Gates of Hell* by Auguste Rodin (1840–1917), yet a totally new embodiment arises through the fragmentation and intermixing. Throughout the series, we observe a cycle where one completion serves as a starting point for deconstruction, which in turn provides the departure for another sculpture.

Movement 4 (2022) is a self-portrait created by the artist during the Year of the Tiger, which is the animal associated with his own birth year. It references Rodin's *The Age of Bronze* (1877), but the tigers are also blended throughout with emoticons and afterimages of the dinosaurs that he loved as a child. Images associated with different times coexist as material residues on a single sculptural surface, expanding the temporal layers that the sculpture medium can explore.

The proliferation of forms gains further momentum as visitors travel toward the outdoor deck. *Playground 1* (2023) presents residues from the creation process and small sculptures from different periods that seem to multiply inside a single structure. It is a setting where childhood playground memories and landscapes associated with different periods overlap as multilayered afterimages. *Bouncy Ball 1* (2024) visualizes the trajectory of an emoticon sculpture traveling through space after being tossed like a ball. *Sculpture Train* (2025/2026) creates a rollercoaster of motion as various sculpted emojis, animals, and fruits

are linked into a kind of train. Extending to nine meters in length, the work was originally placed on a railroad track at the Gyeongchun Line Forest Trail; for this exhibition, it has been divided into two parts that extend along the second-floor railing, with energies of proliferation and acceleration that radiate throughout the space.

Once viewers arrive at Incheon Art Platform's outdoor deck, the sculpture is no longer the work of a single person's hands. Expanding on an artistic approach of achieving resonance as smaller sculptures create a single massive form, Kwak experiments with the possibilities of open-ended sculpture that is created by multiple participants. His new series *Play Sculpture* consists of emoji sculptures that people can sit on, playful sculptures in the shape of slides, and other play sculptures with the same height as a child. The forms gradually take shape over three workshops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as other hands are applied to sculptural structures previously created by the artist. To Kwak Intan, this co-creation is an experiment with the question of how open sculpture can be.

안태원, <히로는 어디에나 있다>, 2025, 제3회 아크릴릭, 66 × 24 × 39 cm.
 AHN Taewon, *Hiro is everywhere*, 2025, acrylic on resin, 66 × 24 × 39 cm.



안태원의 작업은 친밀한 현실의 감각과 네트워크 위에서 유통되는 이미지의 감각이 한 경험 안에서 뒤섞여 있다는 조건에서 출발한다. 작가가 붙잡는 대상은 반려묘 히로와 친구들처럼 체온과 습관, 함께 보낸 시간의 감각이 쌓인 존재들이다. 이들의 이미지는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도, 몸으로 나누는 교감 속에서도 동시에 존재한다. 작가는 이러한 대상을 촬영하고 3D 스캔과 AI 이미지 변형을 거쳐 이미지의 흐름 속으로 보낸다. 맘이 유통되고 글리치가 발생하는 방식이 가장 친밀한 존재 위에 덧씌워지는 셈이다. 두 감각은 뒤섞여 있지만 온전히 포개지지 않으며, 전사의 순간마다 남은 어긋남이 이 작업을 추동한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나무 패널, 레진, 우레탄, 캔버스, 가구의 표면 위에 다시 놓이지만, 화면 속 이미지는 현실의 물질 위에 그대로 안착하지 않는다. 재료는 예기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물감 입자와 손의 움직임이 개입한다. 원래의 대상도 화면 속 이미지도 아닌 형상이 그 틈에서 생겨난다.

광고와 자동차 커스텀 페인팅의 계보에서 발전한 에어브러시는 작가의 주된 작업 도구이다. 압축 공기로 안료를 분사하는 이 도구는 손의 흔적 없이 표면을 만들어낸다. 붓자국도 터치도 없는 결과물은 렌더링된 화면처럼 매끈하지만, 실제로는 거리와 각도, 압력과 속도를 몸으로 조율한 결과이다. 손의 흔적이 지워진 표면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하다. 화면에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오류를 물질로 붙잡으려면 신체의 정밀함과 반복이 요구되고, 빠른 이미지의 시간과 느린 제작의 시간이 한 표면 위에서 어긋난 채 포개지며 작업 특유의 밀도를 만든다.

1층 전시장에 설치된 히로 연작의 부조와 조각,

회화는 반려묘 히로를 대상으로 한다. 히로는 체온과 냄새, 털의 감촉을 지닌 존재로, 하나의 이미지가 네트워크를 따라 복제되고 변형되며 누구의 것도 될 수 있는 이 환경에서 <히로는 어디에나 있다>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선언이다. 작가 곁에서 숨을 쉬고 온기가 느껴지며 언어 없이 교감하는 히로는 단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초기 작업에서 이미지는 조각 표면에 빈틈없이 썩워졌지만, 이후에는 뜯기거나 비어 있는 부분이 의도적으로 남는다. 전사의 실패가 조형의 언어가 되며, 히로는 그때마다 과열된 듯 뒤틀리며 낮선 형상으로 터져 나온다.

가구형 신작 <이상한 소품>(2026)은 히로의 이미지가 가구가 된다면 어떤 형태일지를 상상하는 데서 비롯된 작업이다. 조각과 회화, 아트 퍼니처의 경계를 가로질러 작업해온 작가에게 이 오브제는 조각이면서 실제로 앉고 기댈 수 있는 사물이기도 하다. 화면에서 불 법한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와 질감이 가구 전체의 표면을 뒤덮고, 스크린 속에서 가볍게 소비되던 이미지 위에 신체의 무게가 실리는 순간 감상과 사용의 경계는 흐려지며, 그것을 여전히 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남는다.

2층에 설치된 신작 <디지털 꼬치>(2026)는 화면 속에서 빠르게 소비되는 이미지들을 물리적 덩어리로 압축해 수직으로 꿰어놓은 조각이다. 히로의 이미지와 오류의 질감이 확대·중첩된 덩어리들이 높이 290센티미터의 구조 위에 층층이 쌓인다. 겉으로는 돌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내부는 코팅된 스티로폼이며, 화면 위에서 한없이 가볍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이 과장된 스케일로 실제 공간을 점유할 때, 그 어색한 무게감이 표면 위에 새겨진다.

가까운 존재들은 안태원의 작업 안에서 매번 다른 몸으로 돌아온다. 구체적인 현실의 감각과 디지털 이미지의 논리가 교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적 상태가 생겨난다.

The work of AHN Taewon originates in a state where the intimate perceptions of reality intermingle in an experience with the perceptions of images circulated through a network. As we see with the cat Hiro and his friends, the objects that Ahn latches onto are presences in which perceptions of physical warmth, habit, and time spent together exist in layers. Their images appear simultaneously on smartphone screens and in physical communion. After photographing his objects, the artist transports them into a flow of images through the use of 3D scanning and AI image altering. It is an approach where the methods of meme circulation and glitches are applied to the more personal of presences. The two senses coexist without fully overlapping, as the work is driven by the misalignments that arise at each moment of the transfer process.

The images created here are repositioned on wood panels, resin, urethane, canvas, and furniture surfaces, but they do not simply settle onto real-world materials. As the materials react in unexpected ways and paint particles and hand movements become involved, subtle discrepancies arise constantly in the transfer process. The original object emerges in the cracks here as a form that differs from the image on the canvas.

The artist's principal tool is airbrushing, an approach that developed in the realms of advertising and custom automobile painting. Applying paint as a mist through compressed air, it creates a surface where there is no trace of the painter's hand. The result is as sleek as a rendered canvas, lacking brushstrokes or touches, but it is actually the process of physically adjusting the distance, angle, pressure, and speed. Indeed, the less evidence of the hand there is on the surface, the more

effort is required. Materially freezing the errors that arise instantaneously on the canvas entails precision and repetition from the body, creating the artwork's characteristic density as the fast-paced timeframe of the image appears out of sync on the canvas with the slower-paced timeframe of creation.

The *Hiro* series on the gallery's first floor includes relief, sculpture, and painting work that focuses on a pet cat named Hiro. Hiro is a being with warmth, smells, and furry textures, and in an environment where a single image can become anyone's as it is replicated and transformed over networks, the declaration in *Hiro is everywhere* is something impossible from the outset—for there is only one Hiro, the one by the artist's side that breathes, radiates warmth, and communicates without language. In Ahn's earlier works, images were presented compactly on sculpture surfaces, but his later works deliberately leave portions torn or empty. Transfer failures become an aesthetic vocabulary, and Hiro appears each time as a twisted, strange, seemingly overheated form.

Weird picnic (2026), a recent work in a furniture format, began with the artist imagining what sort of form a furniture version of the Hiro image might take. Ahn's work has consistently blurred the boundaries of sculpture, painting, and art furniture, and the object for him is both a sculpture and an item that can actually be sat on or leaned against. The whole surface of the furniture is enveloped in the visual effects and textures of an image one might find on a canvas. As the weight of the body transfers onto images that are typically consumed casually on a screen, the boundary between viewing and use is blurred, leaving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can still be perceived as images.

The recent work *Digital skewers* (2026), which appears on the second floor, is a sculpture in which the kinds of images that are rapidly consumed on screens have been condensed into physical masses that are vertically strung together. Magnifying and layering the images of Hiro and the textures of errors, the masses are stacked in a structure measuring 290 centimeters in height. Outwardly, it appears as hard as stone, but the inside is coated Styrofoam, and as things that are ordinarily lightweight and evanescent on the screen come to occupy real space at an exaggerated scale, the awkward sense of weight becomes inscribed on the surface.

In AHN Taewon's work, presences that are close to our lives reappear over and over in different bodies. A new material ecosystem emerges as the concrete sensations of reality intersect with the logic of digital images. Hiro is still in the process of arriving.

우한나, <밀크 앤 허니-11>, 2023, 패브릭, 비즈, 슝, 590 x 300 x 295 cm.
 프리즈 서울 아티스트 어워드 제작 지원, 불카리 후원.
 WOO Hannah, Milk and Honey-11, 2023, fabric, stuffing, beads, 590 x 300 x 295 cm.
 Commissioned for the Frieze Seoul Artist Award, supported by Bulgari.



우한나는 인간과 사물, 생명체에 잠재한 에너지에 주목한다. 패브릭을 주재료로 평면, 입체, 설치를 넘나드는 그의 작업에서 살아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보호하는 것과 보호받는 것, 나이 들과 젊음, 고통과 희열처럼 양극단에 놓인 조건들은 서로를 향해 열리며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공존한다. 바느질되고 접히고 매달리는 천의 물성은 피부이자 장막이자 하나의 기관처럼 몸을 이루며, 그 안에 잠재한 에너지가 감지 가능한 형태를 띠는 순간 몸의 윤곽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존재를 향해 열린다.

1층 전시장에 들어서면 연보라색 패브릭과 비즈, 슝으로 이루어진 대형 설치 조각 <밀크 앤 허니-11> (2023)이 천장에서 드리워지며 공간을 채운다. 여성의 가슴을 모티브로 천의 부드럽고 유연한 물성을 극대화한 이 패브릭 조각은 거대한 장막처럼 우아하게 공간을 가로지르면서도 공중에 매달린 박쥐의 날개처럼 낮선 생물의 형상을 띤다. 팬데믹 시기에 바이러스의 매개체로 오해받으며 부정적인

인식이 덧씌워졌던 박쥐의 이미지와 여성의 가슴 사이의 형태적 유사성 위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출현한다. 30kg이 넘는 패브릭은 부풀고 처지며 깊은 주름을 만든다. 중력을 따라 깊이 늘어지는 천의 형상은 낙하의 숙명을 비극으로 읽지 않는다. 유연하게 접히는 곡선 안에서 가슴의 수축과 팽창, 박쥐 날개의 펼쳐짐과 접힘이 겹쳐지며, 한때 오명을 썼던 생명이 다시 상승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한다. 내부를 채운 슝은 형상을 팽창시키고, 끝자락에서 흘러내리는 비즈는 젖과 꿀처럼 빛나며 표면 위에 생명의 감각을 번져 놓는다. 여성의 몸에 가해져온 미의 기준과 선형적 시간의 논리, 그리고 무지가 빚어낸 혐오를 거슬러, 한때 오명 아래 놓였던 존재들은 다시 떠오르며 신체의 역동성이자 눈부신 변화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2층 전시장의 긴 통로에서는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된 <백 위드 유_프리저빙 미>(2026)를 마주하게 된다. 2019년부터 이어진 <백 위드 유> 연작은 작가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한쪽 신장이

쪼그라들어 있었다는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작가는 장기 이식과 신체 일부의 탈·부착이라는 의학적 개념을 패션의 언어로 전환하며, 몸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외부로 꺼내어 착용 가능한 조각의 형태로 구성한다.

<백 위드 유_프리저빙 미>는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몸을 알아볼 수 없게 변형하는 역설적인 생존 감각에서 출발한다. 눈에 뵈지 않을 회생양이 되는 상황, 공격하는 순간 오히려 취약점이 노출되는 경험 속에서 작가가 마주한 방어 감각은 <은신>과 <결계>라는 두 형상으로 구체화된다.

<은신>(2026)은 두르는 방식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비정형의 외피로, 해양 생물의 껍질처럼 몸을 감싼다. 어떤 생물의 계통에도 속하지 않는 낮선 신체를 이루며 몸을 숨기면서 동시에 전혀 다른 존재로 변형시킨다.

<결계>(2026)는 라벤더와 민트, 회색 패브릭을 땀고 매듭지어 몸에 두르는 오브제로, 마늘과 고추, 소금 주머니, 팔 주머니처럼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민속적 보호 장치의 감각을 떠올리게 한다. 촘촘하게 엮인 구조는 부적과 장식, 방어 장치 사이를 오가며 몸 둘레에 새로운 경계를 형성한다. 두 작업을 착용한 패션 화보는 영상으로 함께 제시되고, 관객은 별도로 제작된 웨어러블 버전을 직접 착용하며 자신을 보호하고 감추고 변형하는 또다른 신체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된다.

1층과 2층에 걸쳐 설치된 드로잉은 작가의 내면에서 오래도록 자라온 존재들을 불러내는 과정이다.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생각 속에서 몸체를 키우고 증식하며 때로는 작가를 일으켜 세우고, 때로는 위협에 빠뜨리기도 한다. 스스로를 공격하는 일을 멈추기 위해 작가는 그 존재들의 행동과 모습, 역사를 차분히 되짚으며 하나씩 종이 위에 그려왔다. 작가가 만나고 싶었던 존재들, 이미 지나쳐온 존재들, 어쩌면 아직 이름 붙지 않은 또 다른 자화상이기도 하다.

The focus in WOO Hannah's work is on the latent energy within people, objects, and organisms. Working mainly in fabric, she blurs the boundaries of two- and three-dimensionality and the installation medium. Polar opposites—the living and unliving, protectors and protected, aged and youthful, suffering and joy—coexist in a horizontal relationship of openness to one another. The materiality of fabric that is stitched, folded, and suspended presents something that is at once a skin, a curtain, and a body resembling an organ, and when the potential energy within takes on a detectable form, the contours of the body open up to a state of being that has not yet arrived.

As viewers enter the first-floor gallery, they find the space filled with *Milk and Honey-11* (2023), a large installation sculpture of pale purple fabric, beads, and cotton that dangles from the ceiling. Adopting the motif of a woman's breasts, the fabric sculpture maximally emphasizes the soft and flexible materiality of cloth, cutting elegantly across the space like a curtain that also assumes the strange organismal form of a bat's wings hanging in midair. A new organism manifests from the formal similarity between a woman's breasts and the image of bat—a negatively perceived animal that was mistakenly seen as a virus vector during the pandemic. Weighing more than 30 kilograms, the fabric forms deep folds as it swells and dangles. Suspended under the force of gravity, the fabric form does not view this fate of falling as something tragic. In the flexibly pleated curves, we imagine a once-maligned being rising again as we see the overlapping of the breasts' expansion and contraction and the folding and unfolding of the bat's wings. The cotton inside gives the form expanding volume, while the beads that

trail from the edges radiate a sense of life over the surface as they glint like milk and honey. The work defies the beauty standards imposed on women's bodies, the logic of linear time, and hatred born of ignorance. Beings that were once despised rise again in a process of physical dynamism and dazzling change.

In the long corridor of the second-floor gallery, visitors encounter *Bag with you_Preserving me* (2026), a work created for the exhibition. The Bag with you series, which began in 2019, was inspired by an experience in which one of the artist's kidneys had shriveled without her realizing it. Woo uses the language of fashion to represent the medical concepts of an organ transplant and the removal and attachment of part of the body. Drawing out things that should remain inside the body, it shapes them into wearable sculptures. *Bag with you_Preserving me* begins with the ironic survival instinct to transform one's body unrecognizably in order to preserve oneself. In a situation of becoming more prone to victimization the more one stands out and the experience of revealing one's vulnerability in moments when one is attacked, the sense of defensiveness experienced by the artist is rendered concrete through the forms of *Cloak* and *Ward*.

Cloak (2026) presents an amorphous shell that changes its form depending on how it is worn, cloaking the body like the shell of some sea creature. Forming a strange body that cannot be classified in terms of any lineage of organisms, it conceals the body while at the same time transforming it into something utterly different.

In *Ward* (2026), fabric in shades of lavender, mint, and gray has been braided and knotted into an object to be worn over the body. The

result evokes a similar sense to the kinds of objects used in folk beliefs to ward off evil energy, such as garlic, peppers, and pouches of salt and red beans. The densely woven structure creates a new boundary around the body as it alternates between the functions of a talisman, ornament, and defense. A fashion pictorial showing the two works being worn is also presented in video form, and viewers can experience the different possibilities for the body's protection, concealment, and transformation by donning specially made wearable versions.

The drawings located on the first and second floors represent a process of summoning presences that have long lived and grown within the artist. Emotions of unknown provenance breed and grow inside her thoughts, sometimes lifting her up and other times exposing her to danger. To halt the process of attacking herself, Woo quietly examined the actions, aspects, and history of these presences, transferring them one by one onto paper. These represent a still-unnamed self-portrait of things that the artist hoped to encounter and things that have already passed by.

이형구, '아나스 아니마투스', 아나스 아니마투스 에이치, 아나스 아니마투스 디, 아나스 아니마투스 엘, 2006, 레진, 알루미늄 스틱, 스테인리스 스틱 와이어, 스프링, 오일 페인트, 45 x 79 x 55 cm, 52 x 28 x 34.5 cm, 52 x 30.5 x 35 cm, 49.5 x 31 x 35 cm.
LEE Hyungkoo, 'Anas Animatus', Anas Animatus H, Anas Animatus D, and Anas Animatus L, 2006, resin, aluminum sticks, stainless steel wires, springs, oil paint, 45 x 79 x 55 cm, 52 x 28 x 34.5 cm, 52 x 30.5 x 35 cm, 49.5 x 31 x 35 cm.



이형구는 신체를 매개로 현실과 허구, 과학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존재의 외형이 성립하는 방식을 추적해왔다. 호기심을 품은 대상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실험과 분석을 거쳐 구조를 도출하는 과정은 과학자의 방법론을 닮았지만, 작가는 대상의 내부 질서를 끝까지 파고들어 이를 형상으로 드러낸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이자 새로운 종을 빚어내는 조물주의 이중적 시점에서 과학적 엄밀함과 유머를 함께 구사하며, 지식의 체계가 어떤 권위의 형식으로 실재를 구성하는지를 되묻는다. 작가에게 해부학적 정밀함은 존재의 가능성을 가시화하는 방법이자,

몸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실험하는 실천이다.

라틴어로 '생명을 불어넣다'를 뜻하는 <아니마투스(Animatus)> 연작은 대중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해부학적으로 연구해 골격 구조로 재구성함으로써 가상의 존재를 실재하는 뼈대로 구현한다. 작가는 작업 노트 '아니마투스의 기원에 대하여(On the Origin of ANIMATUS)'에서 이들을 “동물의 모습을 하고서 인간의 행동을 과장해서 흉내”내는, “연속된 시간 속에 살지 않는 영원불멸한 존재”라고 묘사한다.

또한 또 다른 글 '낮익은 계보(Familiar Tree)'를 통해, 오랜 시간 여러 창조주들의 손을 거처온 이들의 시각적 혈통이 “종이 달라도 유사한 움직임과 표현 방식을 반복한다”고 서술하며, 이를 “문화적 유전자(cultural DNA)”가 전해지는 현상으로 명명한다. 자유분방하고 납작한 2차원의 캐릭터들은 작가의 손을 거쳐 “9.807m/s²의 중력 세계”로 소환된다. 작가의 표현처럼 “현실의 시간으로 불러들여진 그들의 몸은 지구상의 많은 생물들이 그러했듯이 연한 조직들을 잃고 단단한 구조만이 남게” 되며, 결국 3차원의 현실 속에서 끝없는 시간 위에 놓이게 된다.

1층 전시장 중앙에는 낮익은 부리와 물갈퀴를 지닌 가족들의 뼈대를 재구성한 <아나스 아니마투스, 아나스 아니마투스 에이치, 아나스 아니마투스 디, 아나스 아니마투스 엘>(2006)이 자리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신체에 대응하는 가상의 골격에 분류학적 학명이 부여되는 순간, 이 존재들은 자연사 표본과 구별되지 않는 위상을 획득한다. 이 작업은 2008년 스위스 바젤 자연사박물관 개인전에서 실제 표본들과 나란히 전시된 바 있다.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을 토대로 구상된 신작 <아틀라스 오브 아니마투스 아나토미(Atlas of Animatus Anatomy)>(2026)는 5미터 높이의 전시장 벽을 활용한 장소특정적 설치 작업이다.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되는 <아니마투스> 연작의 신작 드로잉을 비롯해 드로잉과 조각, 작가의 메모와 연구 자료, 관련 오브제가 벽면에 설치되며 가상의 존재를 해부학과 분류학의 형식을 통해 탐구해온 약 20년의 궤적이 작업 지도처럼 펼쳐진다. 관람객은 벽면을 따라 완성된 작품과 제작 과정 사이를 오가며, 작가의 작업실에 들어선 듯 그 탐구의 시간을 가까이에서 마주한다.

2층 전시장에 설치된 영상 작품 <메저(MEASURE)>(2014)는 말의 감각과 운동에서 출발해 몸이 다른 종의 율(律)을 체득하는 과정을 담은 작업이다. 작가는 말의 신체 구조와 움직임을 연구하여 뒷다리 골격을 본뜬 <인스트루먼트 01(Instrument 01)>를

제작하고, 이를 몸에 장착한 채 마장마술(馬場馬術) 경기의 동선과 동작을 반복적으로 훈련했다. 말이 스스로 안무를 펼치는 것처럼 보이도록 움직임을 극도로 통제하는 마장마술처럼, 작가는 낯선 운동학을 몸에 새기는 긴 훈련 끝에 기수이자 말이 되어 최상위 프로그램인 그랑프리 경기를 재연한다. 영상 속에서 인간의 보행 리듬은 해체되고, 말의 운동학이 이식된 신체 위에서 전혀 다른 율동이 시작된다.

이처럼 작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지식의 형식을 부여해 실제로 불러들이거나, 이미 존재하는 신체를 다른 종의 운동학 속에 다시 배치하며 몸이 달리 작동할 가능성을 탐색한다. 몸과 물질적 형상이 서로 다른 조건 아래에서 새롭게 조직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정교하고 집요한 조형적 탐구다.

LEE Hyungkoo has used the body as a medium to trace the ways in which the outward aspects of existence are shaped, blurring the boundaries between reality and fiction and between science and imagination. His process resembles the methodology of a scientist in the way he formulates hypotheses about the things that pique his curiosity and conducts experiments and analyses to deduce their structure. But his approach involves delving all the way into their internal order in order to represent it through forms. From the dual perspective of an archeologist of the nonexistent and a creator of new species, he employs scientific rigor and humor in equal measure as he investigates the types of authority that allow systems of knowledge to shape reality. To Lee, anatomical precision is a way of visualizing the possibilities of existence and a form of practice that experiments with the different ways in which the body can function.

The artist's series *Animatus* takes its name from the Latin word meaning "infused with life." Based on his anatomical research into animated characters that are familiar to the public, Lee represents them with skeletal structures that turn imaginary beings into real structures. In his artist notes entitled "On the Origin of ANIMATUS," he describes these as "immortal beings that do not live in continuous time," explaining that they "take on the forms of animals and present exaggerated imitations of human behavior." In another text titled "Familiar Tree," he characterized their visual lineage—specifically, their passage through the hands of multiple creators over time—as a "repetition of similar movements and expressive techniques even when the species is different." He refers to the phenomenon as a transmission of "cultural DNA." In the artist's hands, these free two-dimensional characters are summoned into the

"world of 9.807m/s^2 gravity." As Lee explains, the bodies that are "invited into real time" ended up "losing their soft tissues and leaving only rigid structures, just as has happened with so many of Earth's creatures." Finally, they are situated in an infinite time frame in three-dimensional reality.

At the center of the first-floor gallery is *Anas Animatus*, *Anas Animatus H*, *Anas Animatus D*, and *Anas Animatus L* (2006), which reconstructs the skeletons of a family of creatures with strange beaks and webbed feet. As taxonomic identities are assigned to imaginary structures corresponding to the bodies of animated characters, these beings acquire a status no different from natural history specimens. The work was exhibited alongside actual specimens in a 2008 solo exhibition at the National History Museum Basel in Switzerland.

Atlas of Animatus Anatomy (2026) is a new work conceived around the Incheon Art Platform exhibition setting. This site-specific installation makes use of the gallery's five-meter-high walls. In addition to new drawings from the *Animatus* series that are appearing for the first time ever in the exhibition, the work has other drawings, sculptures, artist notes, research materials, and related objects placed on the wall in a kind of map of 20 years of explorations of imaginary beings based on anatomical and taxonomic forms. As they travel along the wall, viewers alternate between the finished works and their production process, experiencing these explorations as closely as if they had entered the artist's studio.

MEASURE (2014), a video work presented in the second-floor gallery, captures the process of the body acquiring the rhythms of different species, using the perceptions and movements of horses as its point of departure. After researching the physical structures and movements of horses,

the artist modeled his work *Instrument 01* on the structure of their hind legs. He then attached it to his body and underwent repeated training in the movements of dressage. Just as dressage involves tightly controlling a horse's movements so that it appears to be performing choreography, the artist's extensive training with unfamiliar kinematics allowed him to recreate the Grand Prix, the most demanding level of dressage as both rider and horse. In the video, normal walking rhythms are broken down, and a completely different rhythm begins in a body where the kinematics of a horse have been transplanted.

As these examples show, Lee explores the possibilities for different operations of the body by assigning the forms of knowledge to nonexistent things and summoning them into reality or by rearranging an existing body into the kinematics of another species. This elaborate and persistent artistic investigation shows how bodies and material forms can be reorganized under different conditions.

쉽게 읽는 글 Easy Read

인천아트플랫폼은 누구나 전시를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쉽게 읽는 글'을 제공합니다.

쉽게 읽는 글은 작품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입니다.

Incheon Art Platform provides "Easy Read" texts to allow everyone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exhibition with ease.

Easy Read explanations were written in simple language to allow visitor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the artwork.

곽인탄

곽인탄 작가는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조각을 만듭니다. 높은 성을 쌓고 남은 레고 블록으로 자동차나 나무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남은 재료도 또 다른 조각이 됩니다.

전시장 1층에서 여러 조각이 서로 다른 높이와 방향으로 서 있는 <저글링>(2023)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서커스 곡예사가 던지고 받는 '저글링'을 떠올리며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공룡의 머리처럼 보이는 모양도 있고, 손을 높이 흔들며 춤추는 모습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짝이는 거울 벽면에 작품이 비치면서 마치 커다란 서커스 무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2층에서 만나는 <동세> 연작은 사람 키와 비슷한 크기의 조각입니다. 팔과 다리를 크게 뻗고 있어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조각이나 그림에서 몸의

KWAK Intan

움직임이 느껴지는 자세를 '동세'라고 합니다. 작가는 프랑스 조각가 로댕*의 작품을 참고해 처음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와 이모티콘 같은 모양을 더해 새로운 조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각은 활기찬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야외로 이어지는 문 앞에는 알록달록한 두 작품이 있습니다. <조각열차>(2025/2026)는 롤러코스터처럼 앞으로 뻗어 나가고, <탱탱볼 1>(2024)은 계속 튀어오를 것 같은 모습입니다. 야외 데크로 나가면 하트, 스마일, 따봉, 미끄럼틀처럼 익숙한 모양의 조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작가가 만든 조각의 뼈대 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조각을 붙이며 함께 작품을 완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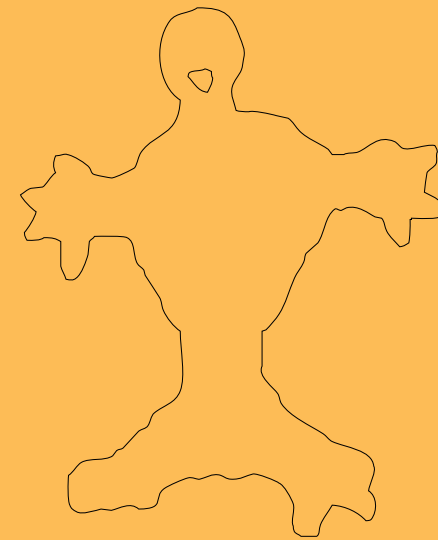
KWAK Intan makes sculptures in the same way that someone might put together Legos. Just as you could build a big castle and then make cars or trees with the remaining blocks, the materials that are left over become new sculptures.

On the first floor, *Juggling* (2023) has different sculptures standing at different heights and in different directions.

The artist imagined an acrobat doing a juggling act at a circus when he made it. If you look closely, some of the shapes look like dinosaur heads, and others seem to be waving and dancing. Seeing the work in the mirror on the wall is like looking at a big circus.

On the second floor, *Movement* has sculptures that are around the same height as a person. They stretch out their arms and legs and look like they might start moving at any moment. When the artist first made these forms, he thought of a work by the French sculptor Rodin.* By adding tiger and emoticon shapes, he turned it into a new sculpture that is full of energy.

Two colorful works can be seen by the door leading outside. *Sculpture Train* (2025/2026) stretches out like a rollercoaster, and *Bouncy Ball 1* (2024) looks like it's about to bounce along. On the deck outside, you can see sculptures that look like familiar things such as hearts, smiles, thumbs, and slides. These were made by people who added their own sculptures to the artist's frame as part of an interactive program.



* 로댕: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유명한 프랑스의 조각가

* Rodin: The famous French sculptor who made *The Thinker*.

안태원

AHN Taewon

안태원 작가는 가장 사랑하는 고양이 ‘히로’를 주인공으로 작품을 만듭니다. 작가는 히로를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조각이나 그림으로 옮깁니다. 인터넷에서는 고양이 이미지가 수없이 퍼져 나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 곁에서 함께 숨 쉬고 온기를 나누는 진짜 ‘히로’는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히로는 어디에나 있다〉는 이렇게 히로의 이미지를 조각과 그림으로 옮기며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작품 속 히로는 목이 뱀처럼 늘어나 있거나, 한쪽 귀만 커다랗게 솟아 있습니다. 이 모습은 히로의 이미지가 작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생긴 변화입니다. 작가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히로는 우리가 아는 고양이와 조금 다르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전시장 1층에는 의자와 테이블처럼 보이는 〈이상한 소풍〉(2026)이 있습니다. 작가는 고양이 히로가 가구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히로의 모습이 그려진 의자와 테이블에 직접 앉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소풍〉은 작가가 만든 작품이면서 의자와 테이블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조각일까요? 아니면 가구일까요?

2층에는 〈디지털 꼬치〉(2026)가 있습니다. 고양이 히로의 얼굴이 꼬치처럼 층층이 쌓여 있는 큰 조각입니다. 작품의 높이는 약 290cm로 천장에 닿을 것처럼 보입니다. 걸모습은 돌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벼운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미지가 커다란 조각이 되니 낯설게 느껴집니다. 히로는 인터넷과 현실을 넘나들며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The star of AHN Taewon’s work is his beloved cat Hiro. The artist takes pictures of Hiro with his smartphone and makes AI images, which he then turns into sculptures and paintings. If you go online, you can find images of cats everywhere. But there’s only one “Hiro”—the actual cat who breathes and shares his warmth with Ahn.

Hiro is everywhere was also made by turning images of Hiro into sculptures and paintings. In the work, Hiro appears with a long neck like a snake or with one huge ear. These are the changes that happened when the images of Hiro were being made into art. The artist kept those differences in his work, and the result is that Hiro feels different and stranger than other cats we know.

On the first floor, the work *Weird picnic* (2026) has a table and chairs. Ahn made it while imagining what his cat Hiro might look like as furniture. Feel free to have a seat at the tables and chairs based on Hiro. *Weird picnic* is a work by the artist, but it’s also a table and chairs. So is it a sculpture or furniture?

On the second floor, *Digital skewers* (2026) is a large sculpture where Hiro’s face appears lined up like pieces of food on a shish kebab. The work is about 290 centimeters high and looks like it might touch the ceiling. From the outside, it appears as hard as stone, but it’s actually made of lightweight Styrofoam. The images here are things we’re used to seeing briefly on screens, and they seem strange when they appear as large sculptures. Hiro keeps taking on new faces between the internet and reality.

우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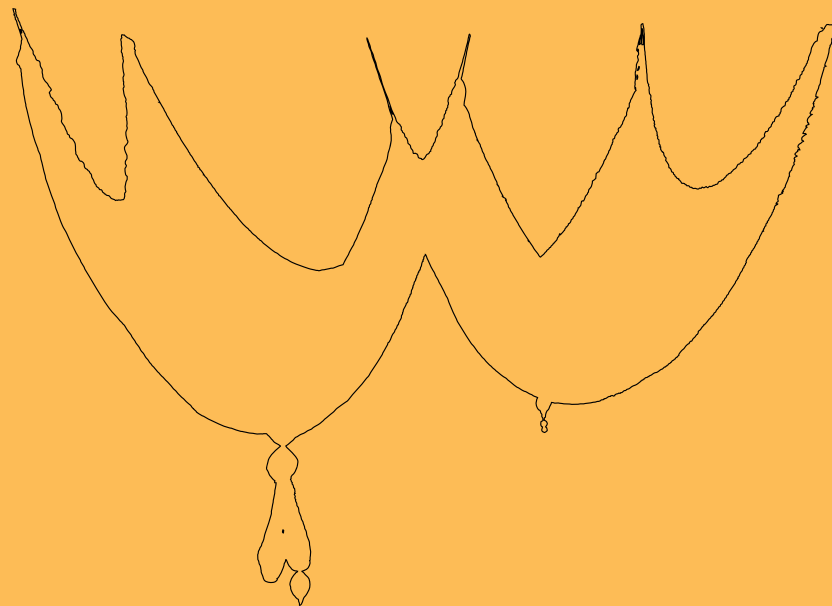
WOO Hannah

우한나 작가는 천(패브릭*)을 사용해 몸 안에 있는 힘을 밖으로 드러내는 작품을 만듭니다. 작가는 다양한 패브릭을 바느질하고, 때로는 반짝이는 비즈를 붙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커다란 설치 작품이 되기도 하고, 몸에 걸칠 수 있는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전시장 1층에는 <밀크 앤 허니-11>(2023)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연보라색 패브릭과 비즈, 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모습은 여성의 가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바닥 가까이에는 솜으로 채워진 둥근 모양과 반짝이는 비즈가 보입니다. 이 작품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시간과 부풀어 오른 가슴을 떠올리게 합니다. 패브릭은 아래로 늘어지며 주름을 만듭니다. 이 주름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우리 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층에서는 ‘입을 수 있는 조각’ <백 위드 유>의 새로운 연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작가 자신도 모르게 몸속 콩팥(신장)이 쪼그라든 것을 알게된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가는 위험하거나 무서운 상황을 떠올릴 때 몸을 변신시켜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은신>(2026)은 바다 생물의 껍질처럼 몸을 감싸 숨겨 주고, <결계>(2026)는 마늘이나 팔 주머니처럼 나쁜 기운을 막아 주는 보호 장치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숨고 싶었던 순간이 있나요? 전시장 안내원에게 요청하면 체험용으로 만든 작품을 착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을 입어 보며 자신을 보호하고 감추는 변신의 과정을 경험해 보세요.



WOO Hannah is an artist who uses fabric to show the forces inside the body. She sews together different types of fabric, sometimes attaching sparkly beads. Her works are large installations, but they can also be worn.

Milk and Honey-11 (2023) appears on the first floor. It's made of pale purple fabric, beads, and cotton. The image of it hanging toward the floor is modeled** on a woman's chest. Near the bottom, we see a round shape stuffed with cotton and glittering beads. The work makes us think of a baby nursing and a swollen chest. Folds appear in the fabric as it hangs down. Those folds show the way our bodies change with time.

On the second floor, you can see work from a new series*** of “wearable sculptures” called *Bag with you*. This work was based on the artist's experience of learning that her kidneys had shrunk. As she remembered a scary time when her life was in danger, the artist found herself wanting to transform to protect herself. *Cloak* (2026) is designed to cover the body like a sea creature's shell, and *Ward* (2026) looks like a good luck charm that is used to drive off bad energy, like garlic or a pouch of beans.

Have there ever been times when you wanted to protect yourself or hide? If you'd like to try putting on the artwork, ask one of the gallery attendants. As you wear the work, you can experience transformation to protect and conceal yourself.

*패브릭: 옷이나 커튼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천
 **모티브: 작품을 만들 때 바탕이 되는 생각이나 모습
 ***연작: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개로 만든 작품들

**Model: An idea or image used as the basis for making an artwork.
 ***Series: Related works of art that share a common theme.

이형구

LEE Hyungkoo

이형구 작가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게 뼈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합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원래 그림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캐릭터에게 실제 동물처럼 보이는 뼈대를 만들어 작품 <아니마투스>를 완성했습니다. '아니마투스(Animatus)'는 라틴어로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작가의 작업 방식은 마치 오래전에 사라진 동물의 뼈를 발굴하는 고고학자를 연상시킵니다.

전시장 1층에서는 <아니마투스>를 위해 작가가 약 20년 동안 이어온 연구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커다란 벽면에 설치된 <아틀라스 오브 아니마투스 아나토미>(2026)에는 14점의 그림과 메모, 연구 자료가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작가는 둥근 좌대 위와 공중에 매달린 <아니마투스> 연작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2008년 스위스 자연사 박물관에서 실제 동물의 뼈와 함께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작가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게 뼈대를 만들어 주어 마치 살아 있는 동물처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2층에 올라와 검은 방으로 들어가면 약 5분 길이의 영상 작품 <메저>(2014)*를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흰 전시장 안에서 말꼬리가 달린 도구를 착용하고, 마치 말이 된 것처럼 움직입니다. 전시장 안에는 말발굽 소리가 울리고, 움직임과 소리가 함께 리듬을 만듭니다. 마장마술** 경기, 특히 그랑프리***에서 우아하게 움직이는 말처럼 작가는 사람의 몸으로 말의 움직임을 보여 줍니다. 방을 나오면 작가가 <메저>에서 착용한 말의 뒷다리 모양을 본뜬 도구 <인스트루먼트 02>(2014)을 볼 수 있습니다.



LEE Hyungkoo is an artist who imagines what animated characters would look like if they had bones. Those characters usually only exist as images. With *Animatus*, the artist made artwork where the characters have skeletons just like real animals. The word “animatus” comes from Latin and means “full of life.” With his artistic approach, Lee is like an archeologist who digs up animal bones from long, long ago.

On the first floor, you can see the 20-year research process that went into *Animatus*. The large wall shows *Atlas of Animatus Anatomy* (2026), which includes 14 paintings, along with notes and research. This is the research that Lee uses to make the work in his *Animatus* series, which you can see sitting on round stands and hanging in the air. In 2008, the work was shown beside real animal bones at a natural history museum in Switzerland. By making skeletons for the

animated character, the art makes them appear like real, living animals.

In the dark room on the second floor, you can see a 5-minute video called *MEASURE* (2014). In it, the artist appears in a white gallery setting wearing a device with a horsetail on it and moving like a horse himself. The sound of a horse’s hooves can be heard in the gallery, and the movements and sounds combine to make a rhythm. Lee uses his human body to show the movements of a horse, like the graceful ones that compete in dressage** at events like the Grand Prix***. Outside the room, you can see *Instrument 02* (2014), a tool modeled on the back legs of a horse that the artist wore to make *MEASURE*.

*메저: 영어 'measure'를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으로, '재다', '기준', '조치', 악보에서 '한 마디'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음
 ** 마장마술: 말을 탄 사람과 말이 정해진 길을 따라 우아하게 걷는 기술을 뽐내는 경기
 ***그랑프리: 마장마술 경기 가운데 가장 높은 난도의 경기로, 말과 사람이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

**Dressage: A horseback riding skill where the rider and horse perform graceful movements along a set course.
 ***Grand Prix: The most different dressage competition, where the horse and rider have to perform the most complex and sophisticated movements.

전시 연계 프로그램

① 함께 만들기 —

참여 작가 워크숍 〈조각 함께 만들기〉

박인탄 작가와 함께 야외 데크에 놓인 조각의 구조 위에 작은 형상을 더하며 하나의 조각을 만들어 보는 워크숍입니다. 서로 다른 손의 움직임이 모여 조각은 계속 변화하고, 가능성을 남긴 채 완성됩니다. 〈조각 함께 만들기〉는 여러 손이 모여 조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회 어린이를 위한 조각 워크숍

진행 일시 4월 11일(토) 13:00-14:00
참여 대상 만 6세 이상 어린이
참여 인원 15명
진행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중앙광장 야외 데크

2회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만드는 조각 워크숍

진행 일시 4월 11일(토) 15:00-16:00
참여 대상 만 6세 이상 어린이와 보호자
참여 인원 20명
진행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중앙광장 야외 데크

3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조각 워크숍

진행 일시 4월 25일(토) 13:00-14:00
참여 대상 조각을 함께 만들어 보고 싶은 누구나
참여 인원 15명
진행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중앙광장 야외 데크

※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② 변신을 말하기 —

작가와의 대화

참여 작가와 기획자, 그리고 미술이론가가 한자리에 모여 전시와 각자의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전시에 출품된 작업을 중심으로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작업의 궤적을 살펴보고, ‘변신’과 ‘연습’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각 작가의 작업을 함께 살펴봅니다.

진행 일시 5월 중 예정(세부 일정 추후 공지)
참여 대상 전시와 참여 작가의 작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인원 20명
진행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A 교육실

③ 연습하기 —

죽음의 바느질 클럽 워크숍

치앙마이에서 시작된 북태와 한군의 ‘죽음의 바느질 클럽’과 함께하는 워크숍입니다. 바느질은 천을 이어 붙이며 형태를 만들어 가는 오래된 손의 기술입니다. 한 땀씩 천을 꿰매는 느린 반복 속에서 평범한 천 조각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갑니다. 전시의 맥락 위에서 바느질이라는 손의 움직임을 통해 형태가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천으로 놀기 — 어린이 바느질 놀이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천을 자르고 이어 붙이며 자유롭게 형태를 만들어 보는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진행 일시 5월 10일(일) / 5월 24일(일)
14:00-15:00 / 15:30-16:30

참여 대상 만 6세 이상 어린이
참여 인원 15명

한 땀의 연습 — 바느질 워크숍

바늘과 실을 사용해 천을 직접 꿰매며 작은 형태를 만들어 보는 워크숍입니다. 반복되는 손의 움직임 속에서 천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 갑니다.

진행 일시 5월 17일(일) / 5월 31일(일)
14:00-16:00

참여 대상 누구나
참여 인원 15명

Public Programs

① Making artwork together: Making Sculpture Together artist workshop

In this workshop, participants create a sculpture along with the artist by adding small forms to a structure placed on the outdoor deck. The sculpture keeps changing as different movements come together, and as the work is completed, it leaves possibilities open. The Making Sculpture Together program offers an experience with the possibility for a sculpture to be created by multiple participants.

1. Sculpture Workshop for Children

Date: Saturday, April 11, 1–2 pm

Participants: Children aged six and up

Participant Limit: 15

Location: Outdoor deck, IAP Square

2. Sculpture Workshop for Children with Guardians

Date: Saturday, April 11, 3–4 pm

Participants: Children aged six and up with guardian(s)

Participant Limit: 20

Location: Outdoor deck, IAP Square

3. Sculpture Workshop for Everyone

Date: Saturday, April 25, 1–2 pm

Participants: Anyone with an interest in co-creating a sculpture

Participant Limit: 15

Location: Outdoor deck, IAP Square

※ All programs are offered free of charge.
Spots can be reserved through the Incheon Art Platform website.

② Talking about Transformation: Conversation with the Artists

This is an opportunity for participating artists, curators, and art theorists to come together and discuss the exhibition and individual creations. Focusing on the work presented in the exhibition, the participants will examine their creation process and development while exploring their work in terms of the “rehearsing” and “transformation” themes.

Date: A Saturday in May

(exact date to be announced)

Participants: Anyone with an interest in the exhibition and the artists’ work

Participant Limit: 20

Location: IAP Education Space

③ Rehearsing: Deadly Sewing Club Workshop

This workshop was organized jointly with Deadly Sewing Club, a movement started in the Thai city of Chiang Mai by Bok Tae and Han Gun. Sewing is one of the oldest skills known to humankind, involving the joining of fabric to make forms. Through a gradual process of repeated stitching, ordinary pieces of cloth take on new appearances. In the context of the exhibition, this offers an experience of a process in which forms are created and transformed by the movements of sewing hands.

Playing with Fabric: Sewing for Children

This program allows children to freely create their own forms by cutting and joining fabric without needles.

Dates: Sunday, May 10 / Sunday, May 24, 2–3 pm, 3:30–4:30 pm

Participants: Children aged six and up

Participant Limit: 15

Rehearsing Stitches: Sewing Workshop

In this workshop, participants use needles and thread to join fabric into small shapes. Through the repeated movements of their hands, the fabric takes on subtly different fo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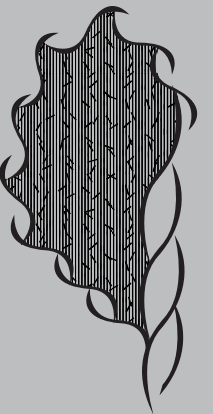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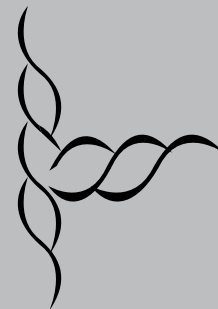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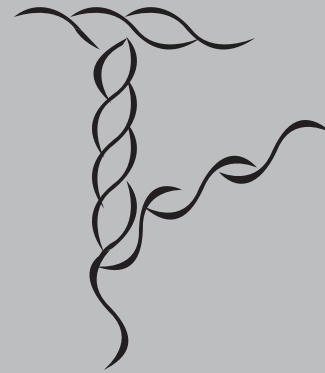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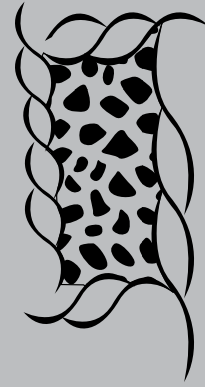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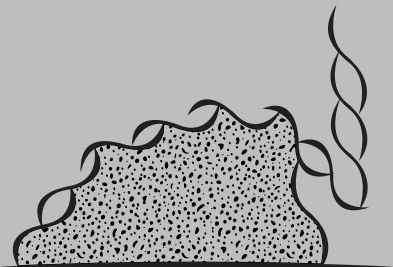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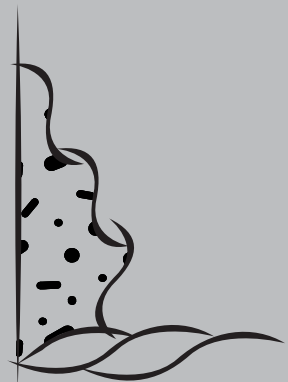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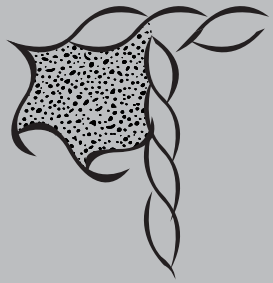
Dates: Sunday, May 17 / Sunday, May 31, 2–4 pm

Participants: Open to all

Participant Limit: 15

참여 작가 약력

Artist Biographies



곽인탄

곽인탄(b.1986)은 어린 시절 미술을 대했던 순수한 마음 그대로 미술 자체를 자유롭게 유희하며, 조형 요소들을 번주하고 흥미로운 상상을 시도하는 과정을 작업에 반영한다. 조각을 공간과 시간, 풍경을 기록하는 장으로 확장해 바라보며,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물질로 형상화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현재 파주를 기반으로 작업하며, 여럿의 손이 더해지는 워크숍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인전 «모양과 모양»(울산시립미술관, 울산, 2025), «팔레트»(공근혜갤러리, 서울, 2022), «Sculpture Gate»(Space 9, 서울, 2020), «Unique Form»(Studio 148, 서울, 2019) 등을 개최했으며, «제2회 노원현대예술제: 바람의 이동경로»(경춘선 숲길 일대, 서울, 2025), «서커스 이펙트»(d/p, 서울, 2024), «쿵»(부산현대미술관, 부산, 2024), «조각모음»(문래예술공장, 서울, 2023), «대발생»(은평문화예술회관, 서울, 2022), «조각충동»(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22), «인저리 타임»(뮤지엄헤드, 서울, 2021)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1년 퍼블릭아트 뉴히어로에 선정되었다.

KWAK Intan

As an artist, KWAK Intan (b. 1986) approaches art with the same pure and free spirit of play that he had as a child, creating work that reflects a process of varying aesthetic elements and experimenting with intriguing imagination. Viewing sculpture more broadly as a realm for recording space, time, and landscapes, he focuses his attention on giving material form to all things imaginable. Currently based in Paju, he includes workshops with multiple participants as part of his artistic process. He has held such solo exhibitions as *Shape & Shape* (Ulsan Art Museum, 2025), *Palette* (KONG gallery, Seoul, 2022), *Sculpture Gate* (Space 9, Seoul, 2020), and *Unique Form* (Studio 148, Seoul, 2019), and participated in multiple group exhibitions such as *Nowon Art Festa: Tracing the Wishes* (Gyeongchun Line Forest Trail area, Seoul, 2025), *Circus Effect* (d/p, Seoul, 2024), *THUMP* (Busan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2024), *Defragmentation* (Seoul Art Space Mullae, Seoul, 2023), *大發生* (Eunpyeong Culture and Arts Center, Seoul, 2023), *Sculptural Impulse* (Buk-Seoul Museum of Art, Seoul, 2022), and *Injury Time* (Museumhead, Seoul, 2021). He was selected as a PUBLIC ART “New Hero” in 2021.

안태원

안태원(b.1993)은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게 소비되는 이미지에 반복적으로 접속하며 형성되는 집착과 시각에 과도하게 쏠린 감각을 신체적으로 경험해 왔다. 인터넷 이미지와 반려묘 히로를 주요 모티프로 회화와 조각을 오가며, 시각 중심의 디지털 감각이 물질과 신체의 차원에서 어긋나는 지점을 탐구한다. 개인전 «Sync»(프로젝트 네이티브 인포먼트, 런던, 2025), «Deep sea fish»(디젤아트 갤러리, 도쿄, 2025), «PPURI»(P21, 서울, 2024), «Liminal room»(플랜 엑스 갤러리, 밀라노, 2023) 등을 열었으며, «오류를 거니는 산책자»(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2026), «CATS!»(마르크 함부르크 세계문화예술박물관, 함부르크, 2025), «이미지 신전»(씨스퀘어, 서울, 2025), «포피는 드러내는 동시에 보호한다»(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2024), «Condo London»(프로젝트 네이티브 인포먼트, 런던, 2024), «Humanism Reimagined: Embracing change»(WWNN, 서울, 2023), «포스트모던 어린이»(부산현대미술관, 부산, 2022)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AHN Taewon

AHN Taewon (b. 1993) has physically experienced the sense of fixation and excessive focus on visuality that emerge from repeated contact with the rapidly consumed images in digital environments. Working in painting and sculpture, he has adopted internet images and the cat “Hiro” as key motifs, exploring the areas where the visually centered digital sense falls out of alignment at the levels of the material and corporeal. His solo exhibitions include *Sync* (Project Native Informant, London, 2025), *Deep sea fish* (Diesel Art Gallery, Tokyo, 2025), *PPURI* (P21, Seoul, 2024), and *Liminal room* (Plan X Gallery, Milan, 2023), and his many group exhibitions include *The Flâneur of Errors*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Seoul, 2026), *CATS!* (Museum am Rothenbaum – Kulturen und Künste der Welt, Hamburg, 2025), *IMAGE SHRINE* (C-Square, Seoul, 2025), *Epidermis bares while shielding* (Space Willing N Dealing, Seoul, 2024), *Condo London* (Project Native Informant, London, 2024), *Humanism Reimagined: Embracing change* (WWNN, Seoul, 2023), and *Postmodern Child*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2022).

우한나

우한나(b.1988)는 패브릭을 주요 매체로 조각과 설치 작업을 전개한다. 신체의 내부와 외부, 보호와 노출, 노화와 생존의 조건을 천의 물질 속에서 다루며, 웨어러블 오브제에서 공간을 가로지르는 대형 설치까지 작업의 형식을 넓혀왔다. 개인전 «폼새»(G Gallery, 서울, 2025), «Appearances»(Frieze No.9 Cork Street, 런던, 2023), «마른 풀 소용돌이»(보안여관1942, 서울, 2023), «Ma Moitié»(송은아트큐브, 서울, 2020), «Swinging»(삼육빌딩, 서울, 2018) 등을 열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Layered Medium: We Are In Open Circuits»(마나라트 알사디야트, 아부다비, 2025), «끝없이 갈라지는 세계의 끝에서»(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24), «즐겁게! 기쁘게!»(아트선재센터, 서울, 2023), «조각충동»(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22) 등이 있다. 2023년 제1회 프리즈 서울 아티스트 어워드, 2025년 제3회 서울예술상 다원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KADIST, 아트선재센터, 두산아트센터, 서울시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WOO Hannah

WOO Hannah (b. 1988) creates works of sculpture and installation that use fabric as their main medium. Through the materiality of fabric, she explores the body's interior and exterior aspects, protection and exposure, and the conditions of aging and survival. In the process, she has broadened her scope from wearable objects to large installations that appear across spaces. Her solo exhibitions include *POOMSAE* (G Gallery, Seoul, 2025), *Appearances* (Frieze No. 9 Cork Street, London, 2023), *Tumbleweeds* (BOAN1942, Seoul, 2023), *Ma Moitié* (SongEun Art Cube, Seoul, 2020), and *Swinging* (Samyuk Building, Seoul, 2018). Her major group exhibitions include *Layered Medium: We Are in Open Circuits* (Manarat Al Saadiyat, Abu Dhabi, 2025), *at the end of the world split endlessly* (Seoul Museum of Art, Seoul, 2024), *Living in Joy* (Art Sonje Center, Seoul, 2023), and *Sculptural Impulse* (Buk-Seoul Museum of Art, Seoul, 2022). She received the inaugural Frieze Seoul Artist Award in 2023 and top honors in the multidisciplinary category of the 3rd Seoul Arts Awards in 2025. Her work is included in the collections of such institutions as KADIST, Art Sonje Center, Doosan Art Center, and the Seoul Museum of Art.

이형구

이형구(b.1969)는 착용형 장치를 통해 신체를 변형하는 작업에서 출발해 가상 존재의 골격을 제작하고, 나아가 몸을 원소와 물질의 차원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조각, 설치, 영상, 사진,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로 전개해왔다. 각 연작은 신체를 바라보는 스케일과 접근 방식을 달리하며 몸이 놓일 수 있는 조건을 확장해온 작업의 흐름을 이룬다. 2007년 제52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개인전 «The Homo Species»를 비롯해 «한국현대미술작가조명 IV – 이형구»(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22), «Chemical»(두산갤러리, 서울, 2021), «Penetrable»(P21, 서울, 2019), «Gallus»(페리지 갤러리, 서울, 2015), «MEASURE»(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2014), «ANIMATUS»(바젤 자연사박물관, 바젤, 2008) 등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또한 «모든 섬은 산이다»(물타기사단 수도원, 베니스, 2024), «가면무도회»(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22), «인간, 일곱 개의 질문»(리움미술관, 서울, 2021), «타이틀매치: 이형구 vs. 오민»(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18), «Superhuman»(웰컴 컬렉션, 런던, 2012) 등 국내외 주요 전시에 참여했다. 2002년 조안 미첼 재단상, 2007년 제3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미술부문)을 수상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과 리움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LEE Hyungkoo

LEE Hyungkoo (b. 1969) has developed from work that alters the body through wearable devices to the creation of skeletons for imaginary beings, while using media such as sculpture, installation, video, photography, and drawing to expand the body to the levels of atoms and matter. Every series differs in the scale and approach it applies to the body, expanding the conditions in which the body may be situated. Lee has held numerous solo exhibitions, including *The Homo Species* for the Korean Pavilion of the 52nd Venice Biennale (2007) as well as *Highlighting Korean Contemporary Artist IV: Lee Hyungkoo* (Busan Museum of Art, Busan, 2022), *Chemical* (DOOSAN Gallery, Seoul, 2021), *Penetrable* (P21, Seoul, 2019), *Gallus* (Perigee Gallery, Seoul, 2015), *MEASURE* (Gallery Skape, Seoul, 2014), and *ANIMATUS* (Museum of Natural History Basel, 2008). He has also taken part in such important Korean and overseas exhibitions as *Every Island Is a Mountain* (Palazzo Malta – Ordine di Malta, Venice, 2024), *Masquerad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Gwacheon, 2022), *Human, 7 questions* (Leeum Museum of Art, Seoul, 2021), *Title Match: Hyungkoo Lee vs. Min Oh* (Buk-Seoul Museum of Art, Seoul, 2018), and *Superhuman* (Wellcome Collection, London, 2012). He received a Joan Mitchell Fellowship in 2022 and the “Today’s Korean Young Artists” prize in art at the 39th Korean Popular Culture and Arts Awards in 2007. His work is included in the collections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and the Leeum Museum of Art, among other institutions.

인천아트플랫폼 기획전시

변신 연습

2026. 3. 26. – 6. 7.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B),

야외 공간

참여작가

곽인탄

안태원

우한나

이형구

전시 기획

김경민

진행 보조

오겸아

쉽게 읽는 글

오겸아

그래픽 디자인

메이저마이너리티(윤현학)

공간 디자인

무진동사

공간 조성

성덕건설

작품 운송 및 설치

(주)아트인 파인아트

영상 장비

케이마운트

영어 번역

콜린 모엣

홍보물 제작·설치

에이앤디플래닛

인쇄

한결디자인

주최

(재)인천문화재단

주관

인천아트플랫폼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관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 본부장/

인천아트플랫폼 예술감독

공규현

인천아트플랫폼 운영팀장

이영리

© 2026 인천아트플랫폼

수록된 글과 사진 및 도판의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와

인천아트플랫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저자나 출처가 표기되지 않은

텍스트는 작가에게 제공받은 설명을 토대로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작성하였습니다.

Incheon Art Platform Exhibition

Rehearsing Transformation

March 26 – Jun 7, 2026

Incheon Art Platform Gallery (B) and Outdoor Space

Artists

KWAK Intan

AHN Taewon

WOO Hannah

LEE Hyungkoo

Curated by

KIM Kyungmin

Assisted by

OH Gyeomah

Easy Read Text

OH Gyeomah

Graphic Design

Major Minority (Ted Hyunhak YOON)

Scenography

mujindongsa

Space Construction

Sungduk Co., Ltd

Transportation & Installation

ARTIN Fine Arts

A/V Tech

K-Mount

Korean to English translation

Colin MOUAT

Publicity Materials

A&D Planet

Printing

Hangyeol Design

Hosted by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IFAC)

Organized by

Incheon Art Platform (IAP)

CEO of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LEE JongKwan

Division Head of the Division of Arts Support,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 Art Director

of Incheon Art Platform

KONG Gyu-Hyeon

Team Leader of Incheon Art Platform

LEE Young-ri

© 2026 Incheon Art Platform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copyright holders and

Incheon Art Platform.

Text without separately indicated authors or sources

was prepared by the IAP Team based on descriptions

provided by the artist(s).

전시 리플릿(한국어/영어)

Exhibition Leaflet (Korean/English)



인천아트플랫폼

22314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해안동 1가)

Tel. 032. 760. 1000

Fax. 032. 760. 1010

3, Jemullyang-ro 218beon-gil,

Jung-gu, Incheon, 22314, Korea

Tel. +82. 32. 760. 1000

Fax. +82. 32. 760. 1010

www.inartplatform.kr

facebook.com/inartplatform

instagram.com/incheonartplatform

youtube.com/incheonartplatform

